

ISSUE & Trend

충북

Vol. 51 2023. 03

ISSN: 2093-5684

CRI

충북연구원의 현재가

충북의 미래입니다.

ISSUE

VISION

권두언

중부내륙시대 만들기

ISSUE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과 대응방향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 탄소중립을 향한 방향타

특별법, 관광분야에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합리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중부내륙특별법 지원 방안

TREND

워케이션! 충북의 관계인구 형성과 로컬문화 확산을 위한 키워드

강원도 스마트 워케이션추진 방향

충북 남·북부권 워케이션 추진

충북 농촌관광의 새로운 기회 '워케이션'

REPORT

REPORT

제주의 자원순환 선진사례를 돌아보다.

충북의 인물

'충북문화재단' 김 갑 수 대표를 만나다.

우리들의 목소리

자전거? 실내에서 타세요~

나의 서재

MIX=믹스

CRI 아카이브 : 충북경제연구(창간호)

CRI NOW

FUTURE

RESEARCH

ECONOMY

CRI 충북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285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문화동 15)
TEL 043)220-1107, 1108 FAX 043)220-1199
http://www.cri.re.kr

CRI 충북연구원

CHUNGBUK

CRI 충북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충북 Issue & Trend
 충북연구원의 기관지로서 창조 연구, 지역 연구, 충북미래 연구 등 지역정책을 제시하며 충북지역 이슈 정책의 선도적 대응책 마련과 연구원의 활동을 포함한 유용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CONTENTS



권두언	충부내륙시대 만들기 04 이만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장
ISSUE	충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과 대응방향 08 최용환 사회통합연구부 수석연구위원 충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탄소중립을 향한 방향타 14 이소영 상생발전연구부 연구위원 특별법, 관광분야에서의 의미와 대응방향 18 최영석 상생발전연구부 연구위원 합리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충부내륙특별법 지원 방안 22 김미경 상생발전연구부 연구위원
TREND	워케이션! 충북의 관계인구 형성과 로컬문화 확산을 위한 키워드 28 명유진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 연구위원 강원도 스마트 워케이션추진 방향 34 이영주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북 남·북부권 워케이션 추천! 38 전가영 남부부원 전문연구원 · 허선형 북부부원 전문연구원 충북 농촌관광의 새로운 기회 '워케이션' 42 김미옥 성장동력연구부 연구위원
REPORT	제주의 자원순환 선진사례를 돌아보다. 48 배명순 상생발전연구부 수석연구위원
충북의 인물	'충북문화재단' 김갑수 대표를 만나다. 54
우리들의 목소리	자전거? 실내에서 타세요~ 60 배명순 상생발전연구부 수석연구위원
나의 서재	MIX=믹스 62 김은형 기획경영실 지식정보팀장
	CRI 아카이브 : 충북경제연구 (창간호) 64
	CRI NOW 66 김은형 기획경영실 지식정보팀장

중부내륙시대 만들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장
충북대 명예교수

이 만 형

십수년 전부터 유엔(UN)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3대 과제로 식량 위기(Food Crisis), 에너지 위기(Energy Crisis), 물 위기(Water Crisis)를 꼽아 왔다. 식량, 에너지, 물의 머리글자를 따서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현존 위기를 절대적으로 모자라거나 없어서 심각한 문제인 FEW Crisis라고도 한다.

우리의 삶을 옥죄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직 가야할 길은 너무나 멀지만 충북은 먹거리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자부할만하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와 접해 있지 않으면서도 수도권 2,500만명과 중부권 300만명을 포함하여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충북에 소재한 대청호와 충주호에서 마실 물을 공급받고 있는 바, 그런 일이 생겨나서야 안 되겠지만, 충북에 만에 하나라도 물 위기가 초래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의 물 위기로 치닫는 루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을 제 때에 공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대청댐과 충주댐을 비롯한 대용량 댐은 수물지역 주민에게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었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비롯한 각종 규제에 따른 제약과 함께 안개일수 증가에 기인한 농작물 피해를 포함한 직접적인 피해를 오랫동안 끼쳐왔다. 그렇다고 적정 보상대책이 댐 건설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았었고, 수십년간 겪어 왔듯 사후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댐 주변지역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는 명제는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타당하다. 그렇다고 해도 물환경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논리를 더 이상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도 곤란하다. 물 환경을 철저히 보전하면서도 주변 지역을 명소로 가꾸려는 노력은 오히려 큰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관점은 호수 바깥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단적인 한 예로 충북을 관통하는 백두대간으로 취약한 접근성 문제는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핵심 관광자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저량(stock) 차원과 더불어 유량(flow)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인구, 산업, 교통 흐름의 중심점이 충북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고속전철과 더불어 고속도로 IC의 중심점도 충북에 존재한다. 이러한 각종 지표들 통해 여실히 드러나듯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사실 오래전부터 갖추어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을 비롯한 내륙지역이 일방적으로 감수해야 했던 부당한 불이익과 피해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은 시대적인 요구인 공간적 정의와 기회균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정부가 종합대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라는 점에서, 이 법을 만들어내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우리 지역의 내일을 좌우할만한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4대 목적을 근간으로 한다. 첫째, 개발낙후시대 해소와 균형개발로 통합국토 연계협력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한다. 둘째, 한반도의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연계협력의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다. 셋째, 국가적 기여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지원과 지역 주권의 회복에 초점을 둔다. 넷째, 국토개발의 중심축으로서 해안발전축을 보완하는 내륙 중심의 성장발전축을 구축한다. 이 모두가 앞서 언급한 고귀한 가치를 드러내는 징표이다.

우리가 디딘고 사는 땅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과 그렇지 못하고 있는 땅으로 양분된다. 후자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땅은 나중에 쓰기 위해 애지중지 아껴놓은 땅과 법적 규제나 제약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땅으로 나누어진다. 충북과 주변 내륙지역에는 아껴놓은 땅도 적지 않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널부러져 있다. 이 땅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게으름도 아주 잘못된 일이다. 지금 당장 적절한 대책이 마땅히 강구되어야 한다.

ISSUE

- 08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과 대응방향
- 14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 탄소중립을 향한 방향다
- 18 특별법, 관광분야에서의 의미와 대응방향
- 22 합리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중부내륙특별법 지원 방안

2022년 12월 충북지역 국회의원 8명 등 총 28명 공동발의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특별법안은 국가가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 등 2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ISSUE에서는 민선 8기 충청북도의 핵심 어젠다인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필요성과 함께 탄소중립, 관광,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그 대응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호수가 아름다운

충북의 봄

충북연구원
충북의 미래를 연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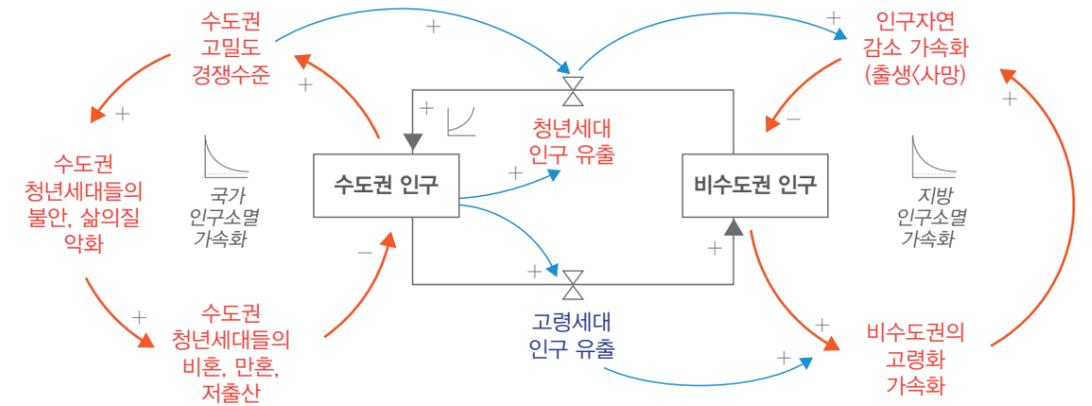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과 대응방향

최 용 환 사회통합연구부 수석연구위원

들어가며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의 새로운 중요한 난제로서 수도권인구, 산업, 경제, 교육, 문화의 집중화를 들 수 있다. 그에 따른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계속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방소멸은 결국 국가소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많은 학자들과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원인은 중부내륙지역을 포함한 영호남권의 중심도시들에서조차도 2030 청년세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구가 빠르게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감사원, 2021).

그림 1.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인구이동의 순환적 상호작용 구조



또한 중부내륙지역은 백두대간, 댐 및 국립공원으로 각종 희생을 감수하고 있으나, 오히려 각종 규제에 의한 상대적인 박탈감뿐만 아니라 지역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댐, 백두대간 및 국립공원으로 인한 각종 중부 규제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책적 대응이 지연되면 될수록 그 사이에 지역의 문제는 악순환 구조로 고착화 되어 그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증폭되기 때문에 정책 대전환을 시급하게 서둘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부내륙지역정책은 지역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의 불균형문제를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와같은 상황이 일정한 시점까지 지속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지역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새로운 지역주도 성장거점의 지역으로서 타 지역으로 확산·파급효과를 낸다면 실질적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1)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3%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1차 국토종합계획(1972~1981)의 동·남해안시대에서 제3차 국토종합계획(1992~2001)의 서해안시대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하였으나, 이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소외 받아온 중부내륙지역을 통하여 국토균형발전, 농촌지역소멸해소, 백두대간과 댐을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 측면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개발낙후시대 해소와 균형개발로 통합국토 연계협력 발전 기반 구축

중부내륙지역은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등 수려한 청정자연과 풍부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수계와 지맥으로 인한 단절과 분절로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지역상생과 통합적 연계협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상생협력 기반의 구축 도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적 기여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지원과 지역 주권의 회복

중부내륙지역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허파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댐으로 인한 공업·생활용수의 공급, 시멘트 원자재 공급을 통한 국가기간시설 건립 등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국가적 목적을 위한 공유재 공급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당한 보상이나 지원에서 외면받았다. 또한 중부내륙지역은 인프라시설의 취약과 생활여건의 악화로 사람이 살지 않는 생활사막화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비전 실현과 통합국토의 공간적 정의를 구현하고, 국가정책수혜의 차별을 개선해 지역의 성장한계 극복과 잠재력 극대화를 통한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지역 육성과 이를 위한 특별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지속 가능한 환경보전과 연계협력의 지역경제공동체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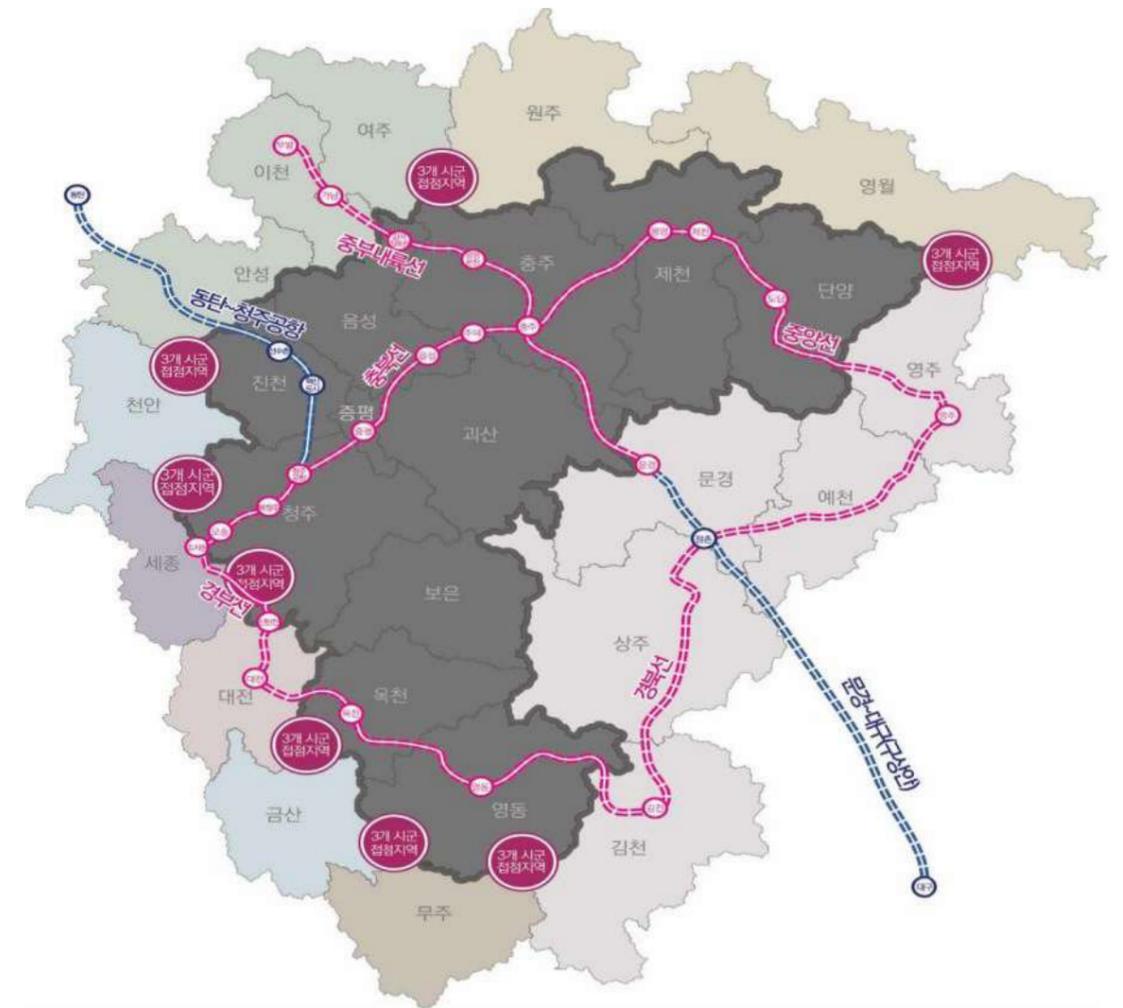
중부내륙지역은 합리적인 규제 완화로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선순환적 발전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과 자원의 협력적 연계와 청정자연 생태환경의 공익적 가치 보전이 요구되므로 이를 보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별법은 백두대간 및 댐 주변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청정환경의 공익가치를 전국적으로 공유하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지원과 지역경제공동체 형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2) 특별법 범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기도·강원도·전라북도·경상북도 등 28개 시·군·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3개 시·도, 시·군이 중첩되어 있는 인접지역은 ① 진천, 안성, 천안, ② 청주, 천안, 세종, ③ 청주, 세종, 대전 ④ 옥천, 금산, 대전 ⑤ 영동, 금산, 무주 ⑥ 영동, 무주, 김천 ⑦ 단양, 영주, 영월 ⑧ 충주, 여주, 원주 등이다. 따라서 중부내륙지역은 지역간 연계·협력이 가능한 인접 시·도가 많아서 지역간 연계·협력이 효과적이며, 발전에 따른 주변 확산이 가능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행정구역의 범위



3) 특별법 주요내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중부내륙연계협력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총 6장 28조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국가 등의 책무,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계획 등의 수립, 위원회 등의 설치,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운영 등, 인허가 의제, 규제특례, 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국가 등의 책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추진 및 지원방안 마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하여 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전,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개발·운영 및 연계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 등의 수립) 환경부 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방지 기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운영 등) 지역 간 연계·협력에 의한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인허가 의제, 규제 특례, 재정적 지원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의제 및 규제 특례 사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 기초 시설 및 도로·철도 등 경제활동 기반이 되는 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의 사업비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및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방향

최근 지방소멸이 다수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심도시권과 접하고 있지 않은 중부내륙 기초자치단체들도 심각한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소생과 지역 활력을 전략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연계발전이 당위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과거의 해안지향적인 국가정책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국토내륙지역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중부내륙지역은 백두대간의 청정환경의 보고(寶庫)와 유구한 역사·문화자원 등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 상대적 소외뿐만 아니라 인구감소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소멸의 가속화는 지역을 넘어 국가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만약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연되면 정책실행의 지연으로 인한 정책타이밍 (PolicyTiming)을 놓치게 되어 정책적 효과는 반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부내륙지역은 과도한 규제지역과 후순위 정책투자자로 타 지역 대비 경제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표 1>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중부내륙지역의 GRDP, 종합소득,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경제력 지표는 평균적으로 非중부내륙지역에 비해 낮다. 그러므로 중부내륙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뒷에 갇힌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표 1. 중부내륙지역과 비중부내륙지역의 주요 경제력 지표

구 분	중부 내륙지역	비 중부내륙지역 (서울미포함)	비 중부내륙지역 (동남해안)	전체
시,군,구 수(a)	28(12.2%)	176(76.9%)	31(13.5%)	229(100%)
지역 평균 GRDP (백만원)	6,910,760	7,374,959	8,419,822	평균=8,416,686
지역평균 종합소득 (수입 신고)(백만원)	3,207,848	4,574,710	4,743,096	4,852,729
지역평균 종합부동산세 (백만원)	16,164	17,727	17,079	31,738

자료 : 통계청(2022), 시군구 GRDP(2019 기준 실질), 국세청 국세(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주: 경북, 경남의 동남해안 31개 지역은 내륙을 제외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포항시,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남구, 동구,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창원시, 통영시.

한편, 중부내륙지역 간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혁신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 회생과 활력을 위한 지역개발을 막고 있는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부내륙 지역의 연계 발전을 위한 노력의 첫걸음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책지렛대는 중부내륙 지역을 환경규제의 울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다른 지역과 형평성 있게 완화하고 지금까지의 공유자원의 희생양이 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지역개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서 중부내륙 지역의 연계발전은 타당성이 있으며,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중부내륙권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내륙연계발전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단순히 지역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생존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선도지역으로 외연을 확대(Spillover Effect)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 감사원(2021), 감사 보고서 :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I (지역), (<https://www.bai.go.kr/>).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 탄소중립을 향한 방향타

이 소 영 상생발전연구부 연구위원

동해안시대, 서해안시대, 이제는 중부내륙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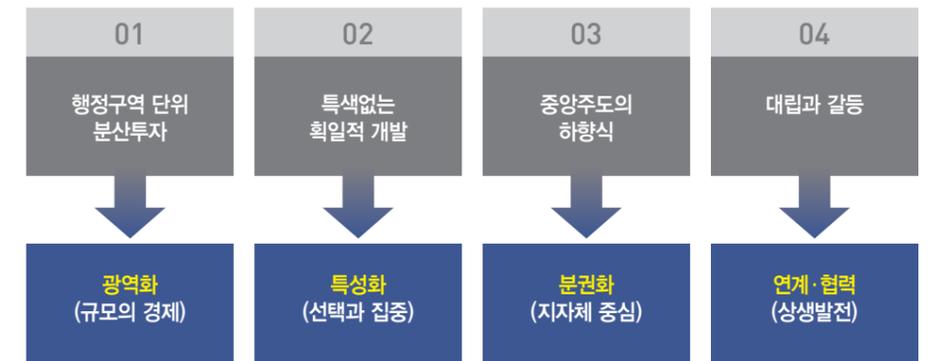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산-울산-포항 등을 대표로 하는 동해안과 인천-평택-서산-군산-목포 등을 대표하는 서해안 중심의 연안시대를 거치며 초고속 성장을 해 왔다. 연안 중심의 국토개발 정책으로 인하여 충북과 인근의 중부내륙지역은 각종 성장 혜택에서 소외되고 사회양극화, 지방소멸 등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낙후되어왔다. 특히, 바다가 없고 국가의 동맥이라는 경부선에서 소외된 충청북도는 각종 규제와 지원의 부족으로 개발낙후가 지속되고 조건 불리의 지역으로 전락하여 국토개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과거의 연안 중심 개발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비전 실현과 통합국토의 공간적 정의를 구현하고, 국가정책수혜의 차별을 개선해 지역의 성장 한계 극복과 잠재력 극대화를 통한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지역 육성과 이를 위한 법률·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김영환, 2023). 또한, 낙후된 중부내륙지역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선순환적 발전 메커니즘의 구축을 위해선 지역과 자원의 협력적 연계와 청정자연 생태환경의 공익적 가치 보전이 요구되므로 이를 보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및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전국 인구의 50.4%를 차지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탈로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으로의 인재 유입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하기에 더 늦기 전에 비수도권의 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할 특별한 전략적 대안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행정구역 단위의 분산투자, 특색 없는 획일적 개발과 중앙주도의 하향식 개발정책이었다면, 이제는 대립과 갈등에서 광역화, 특성화, 연계협력을 중요시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류중현, 2022).

그림 1.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출처 : 김봉원(2022), 지역간 연계 협력 정책동향과 사례 및 활성화 방안

이에, 충청북도는 중부내륙지역이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연계협력과 확산이 용이한 지리적 여건을 살려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지역 역할을 수행하고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본 특별법안은 충북을 중심으로 하여 중부내륙인근지역의 협력권을 구축하여, 국토균형발전 및 동서화합, 지방균형발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부내륙지역의 인접 시도와의 협력사업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지방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특별법에는 1) 중부내륙지역을 새로운 지역주도 성장 거점이자 미래첨단 산업 발전축으로 육성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2)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합리적 규제를 도입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은 둘 이상의 지역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 지원과 역량의 동원 및 활용을 통해 상생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특별법에서 강조하는 중부내륙지역 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 중인 특별법에는 교통, 도시, 환경, 문화 분야에서의 연계 협력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별법과 환경, 특히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실적이 중요한 탄소중립 측면에서의 연계 대응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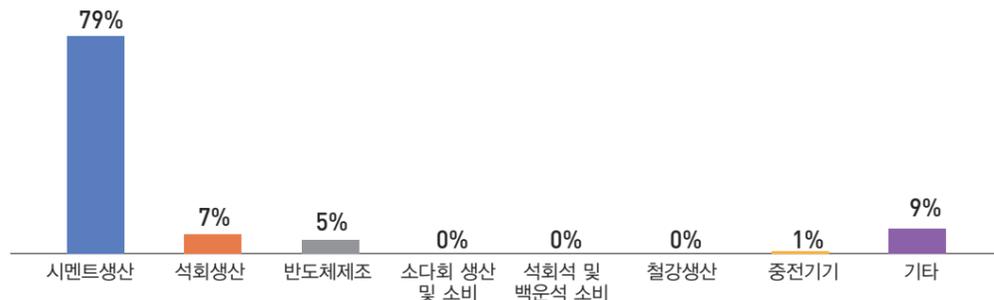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서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경제질서로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고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30 NDC를 상향,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의 이행기반을 마련하였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실질적 공간으로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Top-down) 방식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실행되면서 산업계, 지방정부 등 탄소중립을 실행해야 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실현 가능성이 우려가 제기되는 등의 이행력이 약화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마다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은 각기 다른데, 이는 주로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관련성이 높아서 지자체별로 유사 산업의 탄소중립 전략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충북 지역에서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은 비금속광물산업, 즉 시멘트생산과 관련된 산업이다. 시멘트 산업은 철강, 정유산업과 함께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지목한 대표적인 탄소배출 산업으로, 2021년 기준 국내 산업공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46.8% 가량을 시멘트 산업에서 배출하고 있다. 충북지역 산업공정분야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019년에 137.3% 증가한 10,429.59천톤 CO₂eq를 기록하였고, 시멘트산업과 관련된 시멘트 생산과 석회생산이 전체의 각 79%, 7%를 차지하여, 전체 산업공정 부문 가운데 시멘트 산업의 배출량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그림 2. 충청북도 산업공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출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9)를 바탕으로 재구성(2022)

도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크게 공정과정 개선, 원료전환 및 소성로에서의 폐자원 활용과 같은 연료전환, 그리고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활용하여 유용한 자원으로 탈바꿈시키는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탄소포집활용)가 있다. 그러나 연료 전환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과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의거 매립, 소각 부담을 줄이고 회사는 원가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량으로 반입하여 시멘트의 부원료 및 대체 연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환경영향들은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중부내륙지역 인근 타 시도 시멘트생산지역과 연계하여 상생협력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멘트 생산지역 탄소중립분야 연계협력 - 시멘트 산업 폐기물 반입세 도입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내 다량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유사산업군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전략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자체 정책, 사업, 경험 등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과정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적 불평등에 대한 공동대응책 마련을 통하여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력 강화와 보다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의 경우, 인근 강원도 시멘트생산 지역과 연계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시멘트 산업 연료전환 과정 중에 야기되는 환경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멘트산업 폐기물 반입세”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량의 가연성폐기물(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을 연소하여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환경 피해를 미치고, 정주여권 악화로 인한 급속한 인구감소나 지역경기 침체와 같은 각종 사회적 간접 비용을 유발한다.

표 1. 충청북도 산업공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내용	비고
과세대상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하는 폐기물	
납세의무자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공급하는 자	원인자 부담원칙
납세지	시멘트생산 시·군	
과세표준과 세율	차후논의	
세수규모	N/A	
주요 수혜지역	시멘트생산 시·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계지역 내에서의 공동대응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으로 이익을 얻는 특정인이 주변 환경오염 피해보상 및 지역균형 개발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을 과세하고, 과세 재원을 지역의 환경보호와 개선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을 통해, 충북과 강원지역에 집중된 시멘트 생산지역에서 그동안의 환경피해로 고통받아 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기본생활권이 보장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또 지역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는것과 동시에 특별법이 지역의 탄소중립을 향한 방향타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봉원, 2022. 지역간 연계 협력 정책동향과 사례 및 활성화 방안
- 김영환, 2023. “규제 풀면 충북이 대한민국 먹여살릴 것”. 미래한국
- 류종현, 2022. 중부내륙 연계협력 발전 토론회, 강원-충북 연계협력 발전 방안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2.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9).
- 정삼철·최용환 외 충북연구원 TF팀, 2022. 충북지원특별법 입법 추진의 필요성 검토

특별법, 관광분야에서의 의미와 대응방향

최영석 상생발전연구부 연구위원

들어가며

관광은 국가 및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도가 높다.

관광은 전 세계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10.4%, 국내는 2.8%에 달한다. 또한, 취업유발계수가 국내 전 산업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외화기득률도 88% 수준으로 성장기여도 및 잠재력이 높은 산업분야이기 때문이다.

현재 충북도는 중부내륙권 중심의 국가균형발전과 충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별법과 관광을 연계한 대응방향 논의는 충북 관광발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관광의 관점에서 본 특별법의 의미

본 특별법은 충북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나아가서는 대구·경북 등 지역까지 아우르는 초광역적인 범위를 두고 있다. 또한, 특별법에는 도시·교통·환경·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중부내륙권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관련 법조항들이 제시되고 있다.

관광분야에서는 목적과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관광개발의 효과를 높이고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1개의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충북을 중심으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을 통해 충북에는 국제수변레포츠타단지(충주), 청풍 물길 100리 생태탐방로(제천), 삼년산성 대장간 주막(보은), 산막이 산행유정 마을(괴산),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음성), 소백산 정감록 명당체험마을(단양) 등 총 15개 지역별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충북에는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괴산), 초평 책마을(진천), 옥야동천 유토피아(옥천),

사주당 태교랜드(청주), 속리국곡 관광길(보은), 명승문화마을(단양) 등 10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기존의 광역권 관광사업은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으로 광역화가 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해당 지자체에서 개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 공동사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추진사업들이 대부분 하드웨어 중심의 점적인 사업이고, 일부의 홍보·마케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광의 관점에서 특별법은 기존 추진 또는 신규 관광사업들을 재조합하여 연계시켜 주는 고리역할을 할 수 있다. 특별법에는 중부내륙 발전지역 지정 및 발전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지원조항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법과 연계한 관광사업 추진은 광역적인 브랜드 파워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광역 관광 상품 연계를 통해 관광객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수요자들의 관광경험은 일부지역 또는 광역적 차원에서의 체류기간 연장과 소비지출 확대로 이어져 결국 관광을 통한 중부내륙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표 1.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사업기간	해당 지자체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00~'09	부산·경남·전남(3개 시도 22개 시군구)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00~'10	경북북부 지역 11개 시군(안동·영주·상주·문경 등)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10~'14	부산·전남·경남(3개 시도 26개 시군)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08~'17	경기·충남·정북·전남(4개 도 20개 시군)
지리산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08~'17	전북·전남·경남(3개 도 7개 시군)
동해안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09~'18	강원·경북·울산·부산(4개 시도 16개 시군구)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	'10~'21	대구·경북(2개 시도 24개 시군)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13~'22	인천·경기·강원(3개 시도 10개 시군)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13~'22	충북·강원·경북(3개 도, 17개 시군)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17~'26	세종·충남·전북(3개 시도 19개 시군)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19~'28	충북·대전·세종·충남(4개 시도 28개 시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정보시스템(<https://www.tdss.kr/pub/main.do>), 필자 재정리

충북관광 현황

충북은 강·호수,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재·축제·박물관 등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대청호·충주호·괴산호·미호강 등 757개의 강과 호수, 그리고 그 주변에는 청남대, 부소담악, 도담삼봉, 탄금대, 화양구곡 등의 풍부한 관광자원이 위치해 있다. 또한, 연간 28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속리산·월악산·소백산 국립공원과 49개의 지역축제는 충북관광의 매력을 더해주는 콘텐츠이기도 하다.

표 2. 호수·국립공원 등 관광자원 현황

구분		연계 관광자원 현황
대청호	청주권	- 청남대, 문이문화재단지, 대청호둘레길 - 율리사, 현암사, 벌랏한지마을, 마동창작마을, 장승마을 등
	옥천권	- 향수길, 장계관광지, 부소담악, 대청호둘레길 등
충주호	단양권	- 도담삼봉, 단양팔경, 수양개빛터널, 다리안 관광지,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제천권	- 청풍문화재단지, 청풍케이볼카, 청풍모노레일, 자드락길 등
	충주권	- 탄금대, 국보 제6호 중앙탑, 목계나루, 악어숲, 계명산, 심항산 등
괴산호	- 화양구곡, 쌍곡구곡, 갈은구곡, 산막이예길, 양반길 등	
미호강	- 정북동토성, 미호평야, 소로리법씨, 오천자전거길 등	
저수지	- 청주 명암조수지(명암 유원지) - 음성 삼형제·맹동·원남저수지(품바예술촌, 비채길, 반기문생가 등) - 진천 백곡·초평저수지(농다리, 초롱길, 초평붕어마을 등) - 충주 호암지, 제천 의림지 등	
국립공원	-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국립공원	
축제	총 49건 개최(북부권 14건, 남부권 13건, 중부권 및11건, 청주권 11건)	

출처: 충청북도(2022), 제7차 충청권 관광개발계획, 필자 재정리

하지만 충북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높은 잠재력과 공급여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는 전국 중·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충북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수요는 전국 대비 4.1% 수준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10위, 외국인은 3.2%로 14위 수준이며, 국제관광 인지도는 4.9%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관광사업체 수는 전국대비 2.2%로 13위, 종사자 수는 1.3%로 전국 15위 수준이다. 충북의 이러한 관광지표를 비춰볼 때, 보유하고 있는 매력도 높은 관광자원을 잘 꿰어 내고, 알려내는 보다 세밀한 전략과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표 3. 충북 내국인 관광객 추이

(단위: 천 회, %)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전체	숙박	당일	전체	숙박	당일	전체	숙박	당일	전체	숙박	당일
전국	311,153	163,204	147,949	344,750	162,376	182,374	225,199	88,450	136,749	245,127	87,785	157,342
충북	12,044	5,857	6,186	14,702	7,547	7,155	10,117	4,405	5,711	10,146	4,102	6,044
비중	3.9	3.6	4.2	4.3	4.6	3.9	4.5	5.0	4.2	4.1	4.7	3.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 국민여행조사

관광분야 대응방향

상기의 현황 및 논의를 바탕으로 관광분야에서 광역 도시 간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응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관광브랜드 파워 제고이다. 우리나라에서 관광목적도시는 수도권, 강원도, 부산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과 주변 도시들의 관광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공통의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북 5개 시·군의 해양레저관광 공동브랜드인 'oceanG(오션지)'와 남해안 8개 시·군 통합관광브랜드인 '남파랑'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중부내륙 도시간의 통합 관광상품 개발이다. 도시 간 동질의 또는 이질적인 대표 관광자원을 엮어 관광상품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지(시설)·숙박·맛집·체험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 형태의 통합관광패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부산·통영·남해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쪽빛 감성여행 투어패스'나 대전·공주·부여·익산의 주요 관광지 22개소를 연계 할인해주는 '금강 백제권역 투어패스' 등이 사례가 될 수 있다.

셋째, 중부내륙 도시간 주요 관광지를 연결해주는 광역형 시티투어버스 운영이다. 형태는 크게 충청권 도시를 연계하는 '충청권 시티투어'와 수도권과 부산 등의 내외국인 관광객을 충청권 및 중부내륙 도시로 유입시키는 '초광역 시티투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도시간 연계 시티투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순환 K셔틀'과 경기도가 서울과 경기도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지(EG) 투어버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대응전략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중부내륙 광역 시·도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도에서 운영중인 관광전담기구(충북은 설립 예정)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해본다.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 국민여행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 관광산업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정보시스템(<https://www.tdss.kr/pub/main.do>)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know.tour.go.kr/>)
- 충청북도(2022), 제7차 충청권 관광개발계획

합리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중부내륙특별법 지원 방안

김미경 상생발전연구부 연구위원

들어가며

물은 인간 및 생물의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다. 충북은 한강과 금강의 상류에 다목적댐인 충주댐과 대청댐이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 충청권, 전북도민의 주요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깨끗한 용수 공급을 위한 과도한 규제와 책임만 있을 뿐 규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물 사용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특히 대형 다목적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중부내륙 지역과 연계된 사안으로 댐 건설로 인한 규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특별법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

2022년 7월 1일 민선8기 충북도정 출범 이후 9월 22일 충북도에서는 충북의 물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2월 26일 바다없는 내륙 지역의 발전 계획 수립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 지난 3월 25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방안의 필요성을 이유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하였다.

• 주요 내용

- 국토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도권 확장, 해안권 개발의 수혜뿐만 아니라 댐 건설, 국립공원 지정 등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정당한 보상 및 지원을 받지 못한 중부내륙지역을 새로운 거점으로 해당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 충북지사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공약 건인
- 충북에 위치하고 있는 대청호·충주호의 지속적인 규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수정, 보완
- 중부내륙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충북의 수자원 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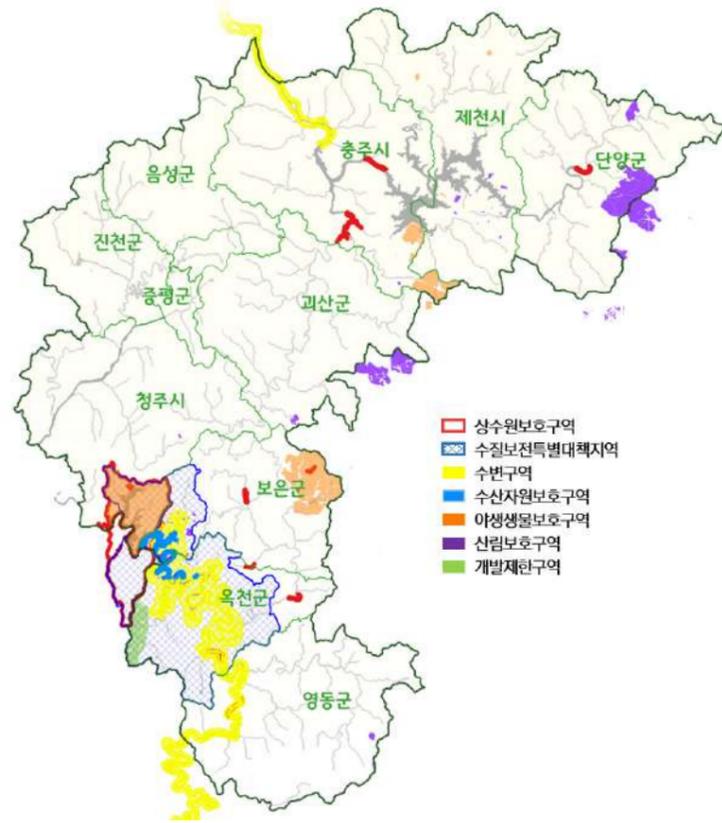
댐 규제 및 지원 현황

수질보전, 개발 제한, 자원 보호 등의 목적으로 많은 환경규제들이 있으며, 충북은 11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개발 및 댐과 관련된 많은 환경규제를 받고 있다. 옥천군과 보은군은 8개 중 7개 중복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83.8%가 규제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발전에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표 1. 환경규제 현황

구분	옥천군	보은군	청주시	영동군	충주시	단양군	제천시	괴산군
상수원보호구역	○	○	○		○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I	○	○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II	○	○						
수변구역	○	○		○	○			
수신자원보호구역	○	○						
야생생물보호구역		○	○		○		○	
산림보호구역	○	○		○		○	○	○
개발제한구역	○		○					
총계	7개	7개	3개	2개	3개	2개	2개	1개

그림 1. 충북 지역의 환경규제 현황



댐 주변지역은 수몰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 지방세 감소, 농·임업 소득 감소, 안개발생, 교통거리 증가로 인한 손해 등 많은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용수공급량, 발전량, 저수면적 등이 큰 충주댐, 대청댐, 소양강댐은 다른 댐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류지역 및 댐관리자 편익			댐 주변지역 피해(추정)
용수공급(광역)	전력생산(추정)	댐용수가치 (추정)	
5,620억원(약 40%) 전국 1조4천억 충주댐 3,934억	2,429억원 충주댐: 1,419억 소양강댐: 1,010억	2,420억원 충주댐: 1,781억 소양강댐: 639억	2,139~2,552억원 충주댐: 1,587~1,655억 소양강댐: 552~897억

자료 : 강원연구원(2020)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몰민과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과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출연 비율을 상향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형평성 측면에서 불공평한 배분이 존재하고 있다.

관광분야 대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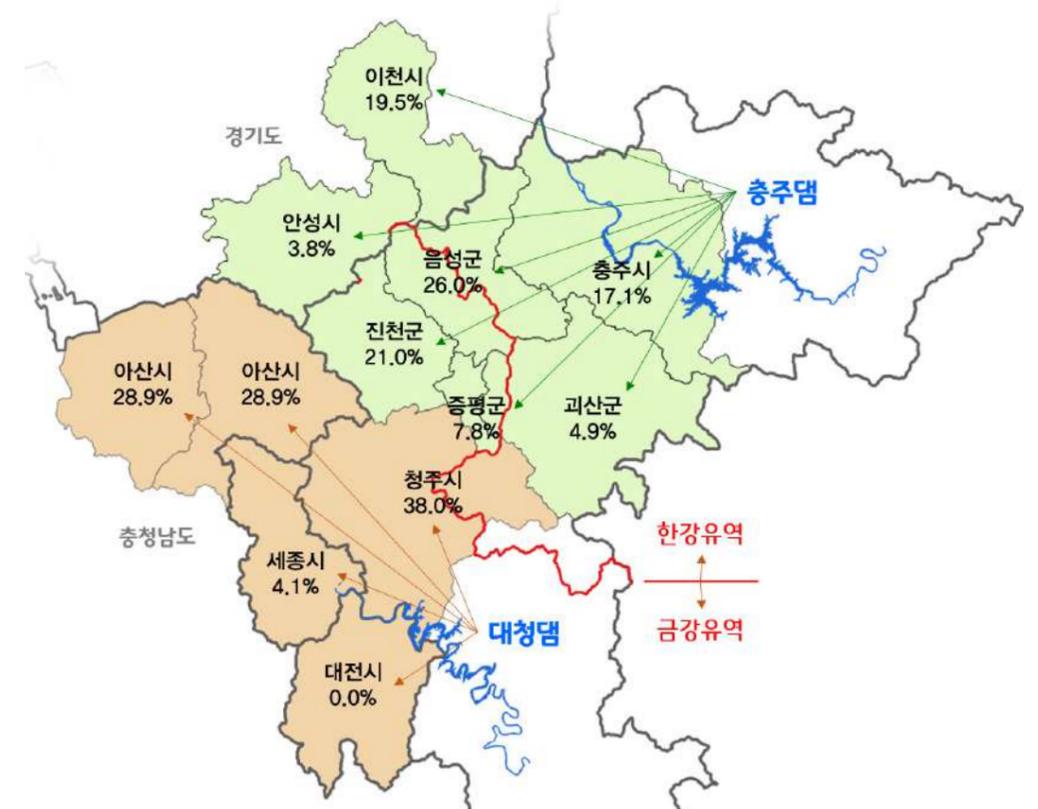
용수 공급량 현황

충주댐광역과 대청댐광역 시설은 2040년까지 충청북도를 포함한 한강유역 및 금강유역의 경기도,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시 광역 시·도로 용수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 충청북도 :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청주시
- 경기도 : 이천시, 안성시
- 충청남도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청양군, 공주시, 홍성군, 태안군

2020년 기준으로 지자체 광역 공급량을 살펴보면, 충주댐과 대청댐에서 55.4%가 충북 지역 외 타 지자체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음성군과 진천군의 경우 배분량 보다 많은 용수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수요량 증가로 향후 용수 부족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충주댐과 대청댐의 광역상수도 공급 현황



자료 : 2021 상수도통계

합리적인 지원 방안

- **규제방법 재검토** : 산업화에 따른 경제개발, 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환경보전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 규제정책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질보호의 책임이 있는 상류와 규제지역 감시 강화 등으로 인한 상·하류 간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도시 발전 및 확장에 따른 개발압력 직면, 생활범위 확대, 전통 수처리 방식에서 고도처리 방식으로의 물관리 기술 발전 등으로 현재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오염원 종류, 모니터링 및 조사, 수문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규제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국비 지원 확대** : 환경규제 지역의 과도한 개발 제한이 아니라 환경규제 지역 내 오염원 사전 처리 및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의 고도처리 기술 등 환경기초시설 및 수질보전 활동에 대한 우선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수질보전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관리방법 개선을 통해 물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아니라 보전·관리할 자산이고 가치가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유역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수자원 고갈, 용수 부족 및 수질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자원 시설을 활용하거나 댐 간 연계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부 지역이 타 유역으로부터 용수공급 계획 수립 및 공급을 받고 있으나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역 간 연계를 통한 용수 배분을 합리화하고 상호 간의 합리적인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하고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와의 연계협력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원연구원(2020), 물 갈등 해소와 지역의 동반성장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3.03.2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배명순 등(2020), 팔당호와 대청호 규제사항 비교 및 분석
- 연합뉴스(2023.02.16.), '중부내륙특별법' 입법 첫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6152700064>
- 옥천군청 홈페이지, <https://www.oc.go.kr/>
- 정삼철 등(2022), 충북지원특별법 입법 추진의 필요성 검토
- 충주시의회(2021), 댐의 편익·피해 형평배분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연구
- 충청북도(2019), 충청북도 공업용수도 공급방안 연구
- 충청북도(2021),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 충청북도인터넷방송(2022.09.22.), '댐 용수 사용 권리 정상화 성명서' 발표
- 환경부(2022), 국가수도기본계획(시설편) 금강유역
- 환경부(2022), 국가수도기본계획(시설편) 한강유역

TREND

- 28 워케이션! 충북의 관계인구 형성과 로컬문화 확산을 위한 키워드
- 34 강원도 스마트 워케이션 추진 방향
- 38 충북 남·북부권 워케이션 추천!
- 42 충북 농촌관광의 새로운 기회 '워케이션'

변화하는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로 일과 휴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향후 트렌드가 될 워케이션을 어떻게 충북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자한다.

워케이션! 충북의 관계인구 형성과 로컬문화 확산을 위한 키워드

명 유 진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 전문위원



워케이션(work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여가와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관광유형으로, 2010년도 초반에 생겨난 개념이다(Pecseck, 2018). 이는 집과 일터의 공간에 대한 구분없이 특정한 곳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하며, 고용주의 동의하에 휴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원격근무나 거점 오피스 형태의 재택근무와는 다른 개념의 근무형태이다(박효연·황지영, 2021). 그리고 근로자가 업무능력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장소와 근무시간까지 근로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김지원·장석훈, 2022).

워케이션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도심형 워케이션은 집, 회사등 익숙한 장소나 도심 호텔에서 업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무형태로, 대도시에서 편안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형태이다. 휴양형 워케이션은 익숙한 장소에서 벗어나 휴양지에서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지역 체류형 근무형태로 바다나 산 등 휴양지에서 즐기는 워케이션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전통 체험형 워케이션은 인적이 드문 농가, 한옥 등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여 업무를 하는 비대면형 근무형태로, 인구밀도가 적은 농촌에서 일하며 농촌을 즐기고 전통체험을 하는 워케이션 형태이다(김지원·장석훈, 2022).



표 1. 워케이션의 장소 유형

워케이션 유형	설명	관련상품
도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익숙한 장소에서 도심 호텔에서 업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근무형태 대도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호텔 장기투숙 프로모션, 얼리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 조식, 식음업장 할인 등
휴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종료 후 바나, 산으로 여행, 휴양지에서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지역 체류형 근무형태 	바다 전망 숙소, 액티비티 결합 상품 등
농촌·전통체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이 드문 농가, 한옥 등의 숙소에서 힐링하여 업무하는 비대면형 농촌 및 전통체험형 워케이션 	지역 숙박상품, 한옥스테이,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 등

출처: 김지원·장석훈(2022)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침체되어 있는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국가들이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1년 에어비엔비의 예약건수가 2020년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한 원인으로, 특정한 곳에서 장기간 머무는 새로운 근무형태 및 업무방식 전환으로 인한 장기체류 수요의 증가로 파악할 수 있다(미래에셋리서치, 2022).

서구에서 워케이션은 업무 스트레스 완화, 관광과 같이 개인적인 목적의 휴일 근무(working holiday)의 의미로 해석되며, 업무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근무시간제의 성격이 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와 회사가 주도하여, 근무자의 유급휴가를 확대하여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관계형성을 통한 교류인구 증가의 목적으로 시작하였다(조한나·김영미, 2022). 즉, 특정 장소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워케이션을 지역의 관계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활용하여, 지방도시로 인구유입 유도 및 정주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조한나·김영미, 2022). 또한 관계인구 형성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재방문의 기회를 만들어, 지방이주 정책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1; 조한나·김영미, 2022). 실질적으로 와카야마현에서는 워케이션 자체협의회(workation alliance Japan)를 설립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4개사의 91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들에게 숙박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는 워케이션 관련 비즈니스 창출, 관광자원의 브랜딩, 기업유치 및 정주인구를 증가시키고, 현내 소비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조한나·김영미, 2022). 태국은 정부관광청이 주도하여 워케이션 태국을 기획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관광수요 회복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현지 사람들과 생활하며 로컬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홈스테이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 형태를 제공하여 로컬문화를 경험하고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내 균등한 소득분배 효과를 기대하였다(조한나·김영미, 2022).

우리나라의 경우 강릉이나 가평 등 근무지에서 벗어나 일주일 또는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해외에서도 근무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장소의 제약없이 근무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김경필, 2022; 김미경·정남호, 2022).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콘텐츠를 개발하여 워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강원도관광재단은 워케이션 포럼(2021)을 개최하여 워케이션을 통한 한국관광 리부팅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2022년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240억 규모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워케이션 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스트리밍하우스와 알티비피얼라이언스(주)는 부산 영도 '봉산마을 머물'프로젝트와 '흰여울 문화마을 체험' 등 8가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워케이션 사업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관광재단과 인터파크는 일, 체험, 휴식에 특화된 워케이션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1차 8,283박, 2차에 1만 1,489박을 판매하였다(김지원·장석훈, 2022).

국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강원도에서는 비대면 최적화를 이용하여 지역 호텔과의 협업을 통한 개인형, 프로그램, 기업형 워케이션 상품을 운영하였다. 개인형의 경우 호텔 객실 내에 인터넷 환경조성 및 책상을 구비하여 장기체류를 유도하였으며, 프로그램형의 경우 산과 바다 등 자연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개인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기업형의 경우 아늑자 직원을 대상으로 평창에서 7박 8일 일정을 기획하여 워케이션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벤처공단이 경상남도, 통영, 두미도 마을회와 협약하여 '섬택근무' 추진을 통해 유희공간을 두미 워크센터로 활용하여 바다를 보며 근무하고 쉴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였다(이윤주·지윤호, 2021; 조하나·김영미, 2022). 따라서, 인구소멸 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충북에서는 관계인구 형성과 정주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으로 워케이션 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충청북도는 교통이 편리하고,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인근도시의 산업단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워케이션 관광객 유치에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장점으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지역주민 주도 관광사업체 육성을 위한 관광두레 조성사업을 워케이션과 연계하여 충북도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홍보하고 장기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의 경우 2019년 과산을 시작으로, 청주, 충주, 음성, 보은 등의 지역에서 22개의 주민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역주도 주민사업체를 발굴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숙박, 식음, 체험, 기념품, 주민 여행사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성장한 주민사업체는 로컬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 먹거리 및 숙박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대도시의 기업과 연계를 통한 워케이션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를 갖추어야 한다. 충북의 워케이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두레 조성사업의 차별화된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충북의 관광두레 관광콘텐츠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로컬문화 체험이 가능하며, 편리한 시골에서 편안한 워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쾌적한 공유 오피스, 편리한 인터넷 환경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농촌체험, 커뮤니티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 워케이션을 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의 니즈에 적합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독립된 공간인 공유 오피스에서 워케이션이 가능하고, 고즈넉한 농촌뷰를 통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기존의 농촌체험과는 차별화된 편안하고 편리한 경험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 및 지역민과의 다양한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관계인구 형성이 용이하며, 나아가 청년 인구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워케이션이 가능한 농촌체험



농촌뷰가 가능한 공유오피스
출처: 모하농하우스 인스타그램



독립된 공간에서 즐기는 워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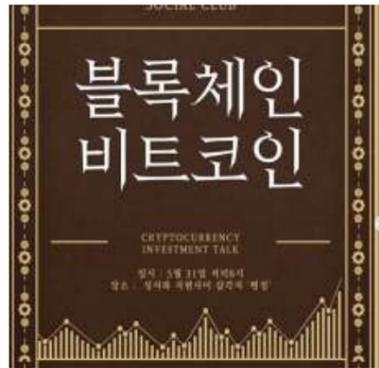
두 번째로, 지역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의미있는 공간을 활용한 로컬콘텐츠 체험과 경험이 가능하다. 특히, 오래된 건물을 재건축하여, 복합커뮤니티 청년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있다.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독특함을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카페나 게스트 하우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 예술가의 미술, 예술작품을 활용한 인테리어로 공간을 구성하여, 장소 자체가 관광 명소가 되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터를 벗어난 워케이션 관광객은 독특한 도시의 분위기를 느끼고, 혼자 방문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웰컴센터를 운영하여 도시를 안내하고, 관광이 끝나면 씨유어게인 센터를 통해 여행을 기념하고 재방문을 기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바이럴을 통한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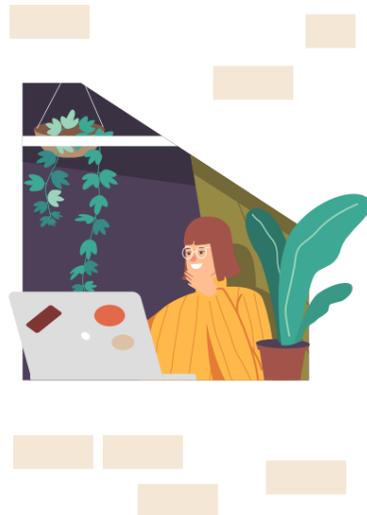


로컬 맥주 시음회

출처: 자적자적협동조합 인스타그램



지역내 커뮤니티 활동



지역의 자원을 개조한 사례



개조 전(여인숙)

출처: 평정 인스타그램, 개인소장 자료



개조 후(게스트 하우스)



로컬에서 즐기는 워케이션



지역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숙박시설

결론적으로 충북도는 인구소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일환으로 지역과 인근도시 연계를 통한 워케이션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차별화된 로컬문화 형성 및 홍보를 위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인근지역의 산업단지내 기업들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워케이션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과 쉼의 경계가 없는 공간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대 및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환대시스템(hospitality system)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민은 지역 콘텐츠 확산과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워케이션으로 장기체류 관광객의 증가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윤이 지역민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숙박, 사무공간, 체험, 관광 등 복합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며, 효율적 업무가 가능하도록 농촌의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고, 유희공간 활용한 워케이션 공간조성을 통해, 충북도만의 차별화된 워케이션 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필(2022). 워케이션: 기업이 아닌 근로자가 장소를 선택하는 시대. 클라우드 나인.
- 김미경·정남호(2022). 코로나19 하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한 워케이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34(5), 209-229.
- 김지원·장석훈(2022). LDA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호텔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 코로나19이후 워케이션 행태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4(3), 331-337.
- 박효연·황지영(2021). 워케이션 활성화 및 관광상품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업 임원 및 인사 총무담당자 인식을 중심으로. Journal of Hotel&Resort, 20(2), 161-178.
- 이윤주·지윤호(2021). 스마트워크 확산에 따른 호텔 워케이션 상품화 방안. Journal Of Hotel&Resort, 20(30), 97-117.
- 조한나·김영미(2022). 워케이션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방안 연구: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Journal of Convergence Tourism Contents, 8(3), 75-90.
- 미래에셋증권리서치(2022.03.02.). "NEW CONVERGENCE: 에어비앤비로 확인한 여행 트렌드 변화". Retrieved from <https://securities.miraeasset.com/bbs/download/2091515.pdf?attachmentId=2091515>
- Pecsek, B.(2018). Working on holiday, the theory and practice on the workation, Balkans Journal of Energy Trends in Social Sciences, 1(1), 1-13.

강원도 스마트 워케이션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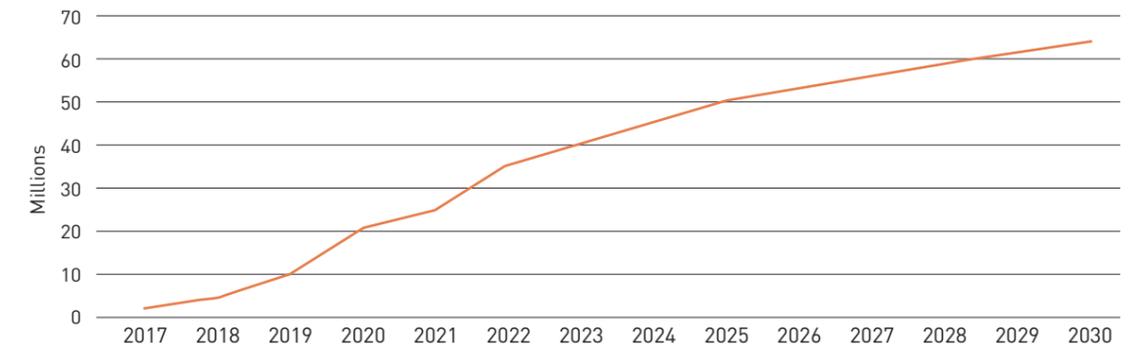
이영주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하는 방식의 변화, 워케이션 개념의 등장

최근 강원도나 제주도 같이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시·공간적 유연성이 확대되는 기회를 살려 이른바 워케이션(Workcation, Work와 Vacation의 합성어)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선점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중요 기술들을 장착한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가상세계의 등장은 '스마트화' 기반의 워케이션 비즈니스를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워케이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경제적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 19 이후 시장의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 현상이 지속되고, 원격·비대면 기반 산업이 성장하면서 디지털화, 탈노동 또는 노동절약형으로 밸류체인이 재구축되고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일과 삶의 관계를 포지티브섬(positive-sum)의 관계로 바라보면서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의 개념이 워라인(Work-Life Integration, 일과 삶의 통합)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디지털 전환(DT, 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를 맞이하여 업무, 교육, 생활 공간 등에 원격, 가상 등의 키워드가 접목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인식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림 1. 세계 디지털 유목민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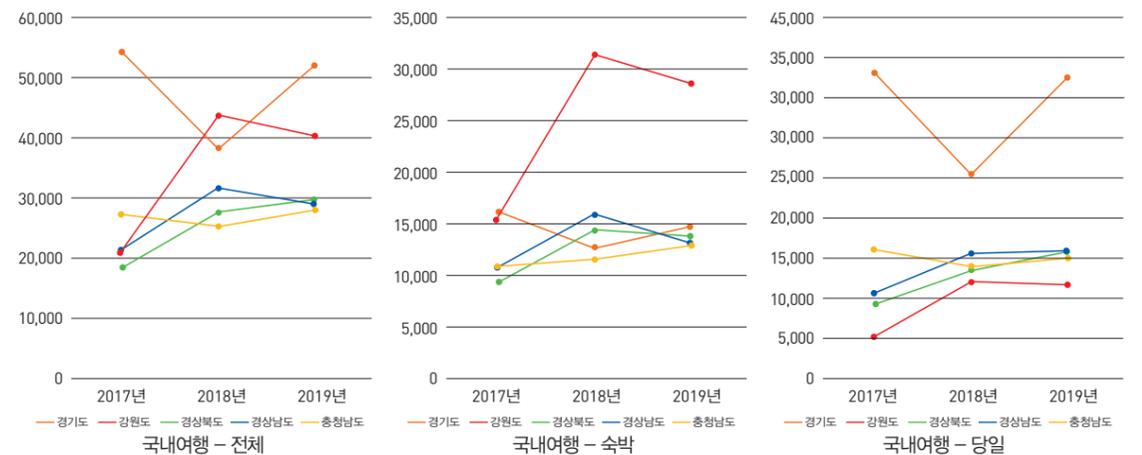
자료 : WYSE Travel Confederation(2017)

워케이션 선호도가 높은 강원도

강원도는 이미 국내 최고의 관광시장으로서 위상을 갖춘 지역으로 워케이션의 선호도가 높다. 문화체육관광부(2020)에 따르면¹⁾, 강원도 전체 국내여행 횟수는 전국 2위, 숙박여행 횟수는 전국 1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내국인들이 숙박형 체류 여행지를 선택할 때, 타 시도보다 강원도를 2배 이상 높게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중요 기술들을 장착한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가상세계의 등장은 '스마트화' 기반의 강원도 워케이션 비즈니스를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직장은 해외 또는 도심에 있으면서, 일은 단절 없이 강원도에 와서 휴가와 관광을 하고,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하게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림 2. 주요 시도별 국내여행횟수 총량 비교(2017-2019)



1)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기준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강원도 스마트 웨케이션 수요의 시사점

2021년 강원연구원에서 발간된 「강원도 스마트 웨케이션 추진방향」 연구를 보면,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강원도에서의 웨케이션 욕구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30~50대 남녀 성인 근로자(한국고용직업분류기준 5개 직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크게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이해, 자신의 직무나 업무 관련 성향, 강원도 웨케이션에 대한 선호도 등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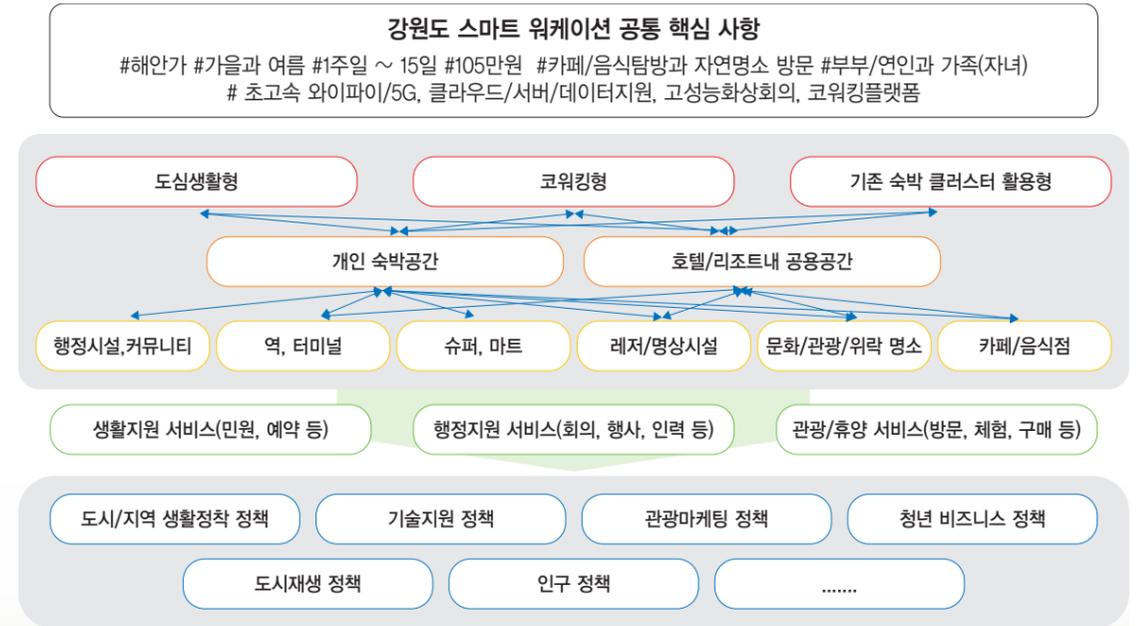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① 강원도에서 웨케이션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수요자들은 우선 '일과 삶의 통합'적 관점을 적용한 근로방식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 견해를 피력하였다는 점, ② 웨케이션 입지 선택의 중요 요소, 선호하는 유형 지역과 시군, 업무공간, 계절, 예상 체류 기간, 지불가능 금액, 참여해보고 싶은 프로그램, 동반형태, 스마트 기술 분야와 필요 기술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강원도 스마트 웨케이션 공급 정책 초기부터 수요자들의 선호도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③ 검토해야 할 스마트 웨케이션의 유형을 크게 3가지(기존 숙박클러스터 활용형, 코워킹형, 도심 생활형)로 구분하여 강원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창출해야 하는 점.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와 AHP를 통해 강원도 스마트 웨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도 탐색하였다. 이에 따르면,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분야를 네트워크, 협력, 생산/제조, 교육, 게임/엔터테인먼트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5개 분야를 구현할 수 있는 해당 기술을 15개로 상정하고, 적합성, 기술 혁신, 시급성, 신시장 창출, 공공비용 절감이라는 5개 항목의 기술 평가 기준을 통해 정책 우선 순위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A 그룹에 포함된 주요 기술은 스마트 웨케이션 플랫폼과 클라우드 서버 기술(클라우드 서비스)로 나타났다.

강원도 스마트 웨케이션의 추진 유형

「강원도 스마트 웨케이션 추진방향」 연구를 통해 3가지의 스마트 웨케이션 유형을 구분하였다. 강원도 스마트 웨케이션에서는 수요자들의 공통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준비해나가면서 앞서 구분한 기존 숙박 클러스터형, 코워킹형, 도심생활형의 유형 구분에 맞춰 적절한 공간과 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3. 강원도 스마트 웨케이션 추진 유형(안)



강원도 스마트 웨케이션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정책제언의 방향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수요자 지원에 있어서는 웨케이션 커스톰어 유치와 웨케이션 인센티브 지급 등을 제안하였으며, 둘째, 공급자 지원에 있어서는 강원도형 스마트 웨케이션 공급 여건 마련, 시군 단위 웨케이션에 대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지원, 웨케이션 시·정책화를 위한 행정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정책 지원을 위한 행정 환경 정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실제 사업화 방안 모색, 중장기적으로 웨케이션 시장에서의 주도권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 지역 내 웨케이션 공급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

- 스마트 웨케이션 공급 여건 마련
 - 강원도형 스마트 웨케이션 플랫폼 제공
 - 강원도형 스마트 웨케이션 원스톱지원센터 구축
 - 기존 유휴시설들의 스마트 기반 코워킹스페이스 환경 지원
 - 플랫폼 내 강원도의 각경제 부업거리 커뮤니티 지원
- 시군 단위 웨케이션에 대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지원
 - 웨케이션 대상 목적지별 홍보 시리즈 제작 및 유통
 - 서울/수도권 등에 스마트 웨케이션 팝업스토어 설치
- 웨케이션 시·정책화를 위한 행정 지원
 - 웨케이션 전용 공간 인증 기준 마련, 프로세스 지원
 - 강원도-시군-민간비즈니스가 참여하는 웨케이션협의체 출범

■ 강원도 웨케이션을 원하는 수요자 지원 방안

- 웨케이션 커스톰어 유치
 - 웨케이션에 참여할 회사, 기업, 기관 적극 유치, 목록화
 - 웨케이션 공간에 대한 구독서비스 실시
- 웨케이션 인센티브 지급
 - '한 달 살기' 등의 상품 공급 확대를 통해 프로슈머 활동비 지급
 - 웨케이션 장기 체류자를 위한 지역화폐/상품권 지급 이벤트

■ 스마트 웨케이션 정책 지원을 위한 행정환경 정비 방안

- 중장기적 관점 : 실제 사업화 방안 모색
 - 부서 융합형 정책지원팀 구성
 -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의 관광휴양도시 모델과 접목
- 중장기적 관점 : 웨케이션 시장에서의 주도권 마련
 - 근로방식 변화에 대한 법·제도적 환경 변화 지속 대응
 - 다양한 분야의 기업/사업체 유치 전략과 정책 융합

충북 남·북부권 위케이션 추천!

전 가 영 남부분원 전문연구원 · 허 선 형 북부분원 전문연구원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제시한 위케이션은 지자체의 주요 관심사인 체류형 관광 및 관계인구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주일 살기, 한달 살기 등 장기 체류형 관광수요를 높일 수 있고 방문객과 지역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향후 지속적인 방문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관광지 특성상 주말(금-일) 예약률과 비교해 주중(월-목) 호응도가 부족한 편인데 이러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본고는 충북 남·북부권의 위케이션 추천지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위케이션 가이드에 따라 숙소 내부 또는 인근에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책상, 의자, 네트워크 등)가 갖추어진 공간이 있고 차량 20분 내의 거리에 관광지, 체험 관광시설이 있는 숙박시설로 선정했다.

충북 특히 남·북부권에서 위케이션은 아직은 생소한 개념으로 도입 및 시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위케이션 시설이라고 명명하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일부 방문객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환경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업무 인프라를 갖춰 위케이션 도입 부담이 적은 개인주도의 관광지(지역) 연계형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수용 환경을 정비하면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이 남부권(보은·옥천·영동군)과 북부권(제천·충주·단양)을 찾는 사람들의 일상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보은 우당 고택

4인실(거실1, 침실1), 6인실(거실1, 침실1, 욕실1, 주방)

• 위치: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개안길 10-2 (보은IC에서 차량 10분 내외)

보은 우당 고택은 1919~1921년 보성 선씨 선정훈이 당대의 제일가는 대목들을 불러 징은 전통가옥으로 안채와 사랑채, 사당의 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채 건물 내 4인실 1실과 6인실 2실로 구성된 독채를 활용해 한옥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숙소는 TV, 냉장고를 포함한 소형가전이 갖춰져 있고 작은 탁자가 있어 간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과거 관선정의 유지를 이어 고시원으로 운영하던 작은 2인실의 방이 있어 기업과 같은 단체의 방문도 가능하다. 사랑채는 카페로 운영되어 일과 휴식을 겸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안채의 대청은 방문객이 한옥의 경치를 즐기며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우당 고택에는 수많은 장독대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직접 담근 고추장·된장·간장을 요리에 활용하며 장, 짬야찌, 대추꿀경단, 한식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인근에는 우체국, 보건소, 슈퍼 등 편의시설과 속리산 국립공원, 서원계곡, 말티재 전망대, 슬향공원 스카이바이크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있다.

후 기: WORK(★★★☆☆) VACATION(★★★★☆)



숙소 내부



숙소 외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숙소 내부



숙소 외부

4인실(침실1, 욕실1), 8인실(거실1, 침실2, 욕실1)

•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100 (옥천IC에서 차량 10분 내외)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은 옥천의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즐기기 위해 2020년 개관하여 현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숙박동인 고시산관에 4인실 10실과 8인실 3실을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시설로는 TV, 냉장고, 소형가전 등이 준비되어 있고 소형탁자에서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다. 체험관 내에는 넓은 주차장과 식당 등의 편의시설과 관광 안내소, 한복대여점 등의 관광 관련 시설이 있고 평일에는 크게 붐비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기 좋은 카페가 있다. 세미나실, 전시실(상설/기획) 등의 부대시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워킹 스페이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체험동인 옥천관에서 공예(목, 죽, 도자 규방, 염색 등), 다도, 전통풍류, 전통음식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전문/학습 강좌, 일일/문화/자율/특별 체험으로 구분해 상시 운영하나 일부 체험은 사전 접수가 필요할 수 있다. 옥천 구읍에 위치한 숙소는 차량 10분 내의 거리에 종합병원, 마트 등 편의시설이 있고 향수호수길, 선사공원, 친수테마공원 등에서 가벼운 산책과 골프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상계체육시설에서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구읍의 명소인 정지용문학관, 옥천향교 등 역사·문화 자원과 장계관광지, 수생식물학습원 등 유명 관광지까지 선택의 폭이 넓게 휴가를 즐길 수 있다.

후 기: WORK(★★☆☆☆) VACATION(★★★★★)

영동국악체험촌

2인실(침실1, 욕실1), 6인실(침실1, 욕실1), 가족실(거실, 침실2, 욕실)

•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1길 33
(영동IC에서 차량 20분 내외)

영동국악체험촌은 친숙하지만 자주 접할 수 없는 우리 전통음악을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체험·체류형 국악타운으로 국악 누리관과 소리창조관에 2인실, 6인실, 가족실 등 50실 내외의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어 개인부터 단체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실에는 TV, 에어컨, 소형가전 등이 구비되어 있고 업무 공간은 각 층의 휴게 공간 또는 국악누리관 B1층에 위치한 정보검색실(PC 이용 가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2개의 세미나실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체력 단련실, 세탁실, 조리실 등의 부대시설과 야외운동시설인 족구장도 설치되어 있어 장기체류에 용이하며 영동군 외곽지역인 심천면에 위치한 국악체험촌의 주변에는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하지만, 차량 15분 이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편의시설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난타, 전통놀이, 천고 타북, 국악의상, 국악기 제작 및 연주 등이 있으며 체험촌 내부의 대형 공연장에서는 토요일 상설 공연이 개최되고 국악로 초입에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난계국악 박물관, 난계사 등의 국악 관련 공연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옥계폭포, 영동소석고택 등의 숙소 주변 관광지과 영동군의 명물인 영동와인터널, 과일나라 테마공원 등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를 경험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후 기 : WORK(★★★★☆) VACATION(★★★★☆)



숙소 내부



숙소 외부

제천 포레스트 리솜



숙소 내부



숙소 외부

5인실(거실 겸 침실1, 온돌1, 욕실1), 6인실(거실, 침실1, 온돌1, 욕실)

•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365

제천 포레스트 리솜은 제천시가 지닌 천혜의 자연환경 속 휴양시설로 구한산, 주론산 속에 위치한 분지형 구조의 숙소이다. 5인부터 7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객실을 지니고 있으며, TV와 에어컨, 소형냉장고 등과 같은 소형가전은 물론 식탁 겸용 소형탁자가 있어 컴퓨터 작업은 물론 간단한 서류업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형 회의실과 영화장 등을 갖추고 있어 워크숍과 같은 단체 및 기업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야외공연장, 사진관, 목공체험실과 같은 문화 및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여가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차로 20-30분 거리에 베론성지, 청풍호반케이볼카, 내토전통시장, 익림지 등과 같은 관광지가 위치해 있다. 또한, 현재 제천시가 제천시관광협의회를 통해 위탁·운영 중인 워케이션 프로그램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의 적격지로 포레스트 리솜이 낙점 받은 바 있으며, 현재 본 사업 신청을 통해 체재비 일부(숙박비, 체험비, 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후 기 : WORK(★★★★★) VACATION(★★★★☆)

충주 문성자연휴양림

4인실(침실1, 욕실1), 6인실(거실, 침실1, 욕실1/다락방 구조)

•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우성길 191

문성자연휴양림은 충주시 가금면 봉황자연휴양림, 종민동 계명산 자연휴양림에 이어서 산림 휴양, 숲과 목재문화를 육성 및 발전 시키고자 세 번째로 충주시에서 조성한 자연 휴양림으로 2008년에 개장한 휴양지이다. 4인실부터, 20인실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TV, 냉장고, 샤워실 등의 기본적인 소형가전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소파와 탁자가 구비되어 있어 간단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캠핑이 가능한 야영장, 수영장과 같은 부대시설이 있어 가벼운 레저를 즐길 수 있고 유료로 세미나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및 단체의 방문과 이용이 용이한 점이 있다. 또한 휴양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목공 체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 중에 있어 현장에서 운영시간에 한하여 체험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근방에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중앙탑 공원, 충주박물관은 물론 탄금대, 중원고구려비가 있기 때문에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여 역사·문화 테마 관광을 즐길 수 있다. 2023년, 올해부터 충주시에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인 "충주 오소(O-SO)"를 진행 하는데 숙박비와 체험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워케이션 관광 숙박시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후 기 : WORK(★★★★☆) VACATION(★★★★☆)



숙소 내부



숙소 외부

단양 단촌서원고택

4인실(침실1, 거실 겸 부엌 1, 욕실1), 6인실(침실2, 마루 1, 부엌 1, 욕실)

•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88-1

단촌서원고택은 단양의 아름다운 소백산과 들, 계곡이 주는 경치와 아름답게 어우러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한옥이다. 소백산 산행은 물론, 고택 내(內) 조성된 수영장, 바비큐장과 카페에서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숙소이다. 최대 8인부터 최소 2인까지 체류할 수 있는 7개의 객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본적인 소형가전(TV, 에어컨, 소형 냉장고)이 구비되어있으며 거실 또는 마루에 탁자가 제공되어 업무를 보면서 고택이 주는 정취는 물론, 주위를 둘러싼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주변에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방문자가 구비해야 할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도시에서 지친 마음을 조용한 단양의 자연환경을 통하여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회복할 수 있다. 주변에 방곡도에촌이 위치해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약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적성산성에 도착하여 올라가다 보면 신라적성비를 확인할 수 있다. 성재산에서는 남한강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단양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도 20분 거리에 위치해 액티비티 관광을 즐길 수도 있다. 단, 본 고택은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점 또한 인지해야 한다.

후 기 : WORK(★★★★☆) VACATION(★★☆☆☆)



숙소 내부



숙소 외부

충북 농촌관광의 새로운 기회 '워케이션'

김미옥 성장동력연구부 연구위원

들어가며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제도를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 근무 장소와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근무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원격근무가 가능한 디지털 기반이 조성되면서 이제 인터넷만 원활하다면 어디든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업무와 재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와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맞물려 여행에 대한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한 것이 이를 더 촉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는 워케이션을 크게 도심형, 휴양형, 농촌·전통체험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원고에서는 농촌·전통체험형을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충북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려한다.



농촌 전통체험형 워케이션

농촌 전통체험형 워케이션은 한옥이나 독채 등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서 휴식하면서 업무를 함께하는 형태이지만 최근 농촌 전통체험형 워케이션을 준비하는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농업에서는 부족한 농업소득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활용한 농촌관광을 활성화 된 지 오래되었다. 이제는 농촌관광도 양적팽창의 시기를 지나 질적인 성숙을 하는 시기에 들어섰으며 이런 농촌관광의 유형 중 체류형 숙박과 연계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촌은 고령인이 많아지고 인구유출이 심화되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활력감소가 문제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빈집도 많이 생겨나 이러한 빈집을 고치고 활용하여 워케이션 숙박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함께 많아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농촌에 상시 거주하는 정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이나 통학, 관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생활인구도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촌 전통체험형 워케이션은 인구감소지역인 농촌에 활력을 가져다주고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 농촌의 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지만 귀촌은 망설여지는 사람들에게 농촌 전통체험형 워케이션은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농촌 전통체험형 워케이션 사례

경남에서는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으로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노후한 숙박 시설, 회의실, 체험시설을 정비하고 마을환경을 새롭게 하여 워케이션을 유치하려 노력 중이다.

선정된 마을 중 남해 해바리마을은 강진만 연안에 위치하여 농촌과 어촌이 함께하는 반농반어촌의 특색을 경험할 수 있으며 편백숲 및 해안산책로 등이 있고 또한 힐링센터를 통한 숙박이 가능하여 경남의 대표적인 농촌 전통체험형 워케이션 장소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거창군 빙기실 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6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소득체험분야 대통령 상을 수상한 마을로 덕유산 국립공원 내 빙기실 계곡이 있어 물소리를 들으며 업무를 할 수 있는 마을로 트레킹 및 캠핑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림 1. 남해 해바리 마을전경과 숙박이 가능한 힐링센터



자료: 남해 해바리 홈페이지(<http://haebari.kr/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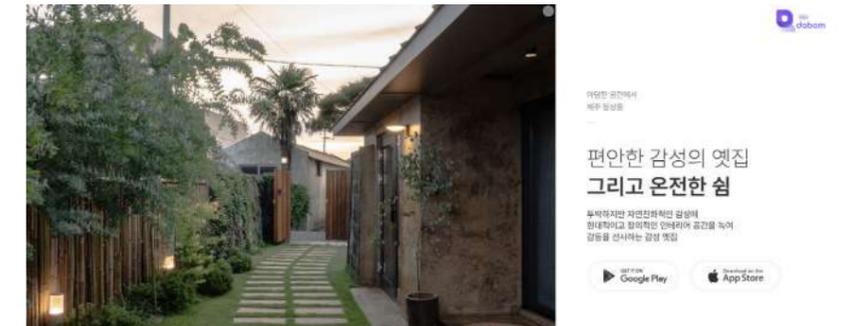
그림 2. 거창 빙기실마을 계곡 전경



자료: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적으로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 등과의 공동 투자를 통해 워케이션 빌리지를 조성하고 빈집과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체류형 워케이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에 특화된 워케이션 전용 플랫폼 '제주다봄'은 제주도에서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숙소를 찾는 것에 특화되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그림 3. 제주다봄 플랫폼 화면



자료: 제주다봄 홈페이지(<https://www.jejudabom.com/>)



충북의 농촌 전통체험형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워케이션이 '지방 소멸에 대한 극복'으로서 농촌에 주는 의미가 크다. 워케이션을 통해 며칠이라도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도시민들이 농촌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기회가 되었을 때 이러한 생활인구들이 정주인구로까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이다. 그만큼 워케이션이 농촌에서는 인구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보인다. 따라서 각 지자체와 지방정부에서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인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충북에서는 제천시가 2021년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가장 워케이션 성장 가능 성과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이렇게 충북지역에서도 워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들이 있다. 또한 이러한 자원이 농촌 전통체험형으로 성장한다면 어려운 충북 농촌에 새로운 소득원이자 활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시작단계라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워케이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촌체험 또는 농촌관광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인지해야한다. 워케이션은 관광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일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농촌의 공간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숙박환경에서 이러한 업무공간이 있거나 거점오피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제주도의 사례와 같이 예약플랫폼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지자체-기업 간의 협약을 통한 유치 및 연계도 해야 한다.

앞으로 관광 트렌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워케이션. 충북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잘 대응해 나간다면 충북의 농촌관광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REPORT

48 제주의 자원순환 선진사례를 돌아보다.

제주의 자원순환 선진사례를 돌아보다.

배명순 상생발전연구부 수석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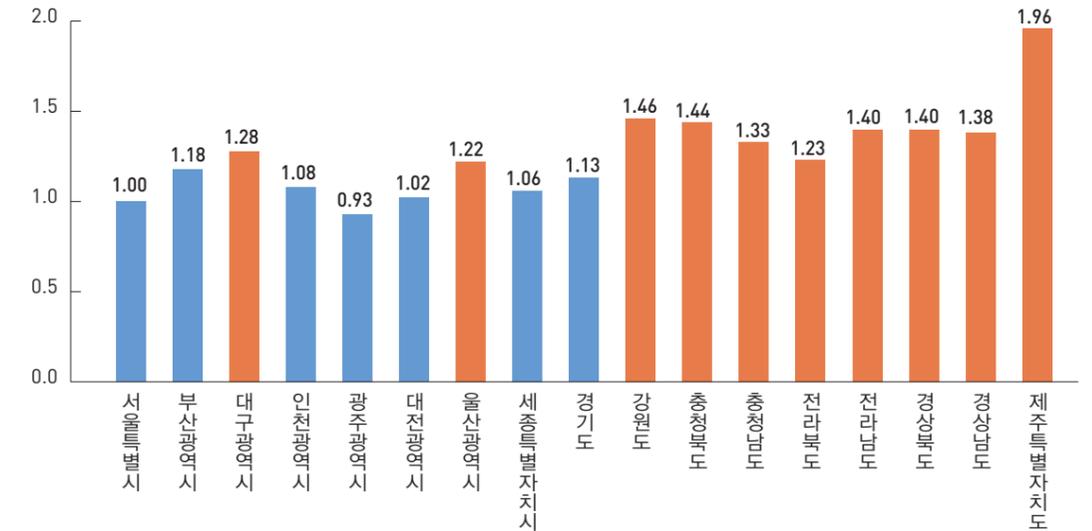
들어가며

기후변화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다. 우리나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21년 기준 1.19kg/인·일이다.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1.96kg)이며, 충청북도는 강원도에 이어 3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다.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일부 선별과정을 거쳐 재활용, 소각 및 매립으로 최종 처분된다. 탄소 등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처분 방식은 소각이다. 그런데 2021년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소각처리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 개정으로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축시키고, 소각이나 매립이 아니라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가정에서의 분리배출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고 관련 기반시설과 행정체계가 잘 정비돼야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관광객 등으로 인한 생활폐기물이 가장 많이 배출되면서도 폐기물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 제주의 자원순환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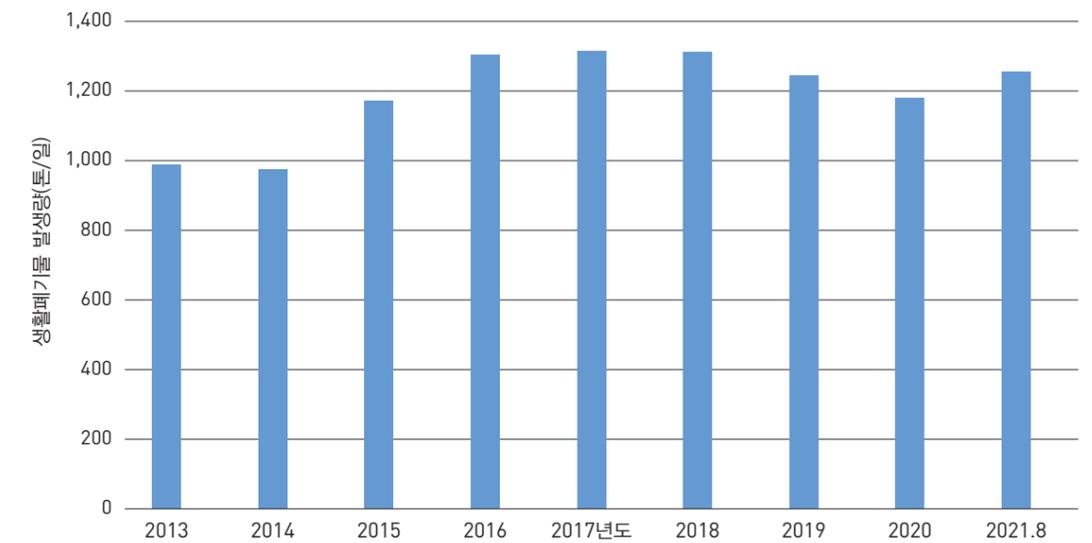
그림 1.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kg/인·일)



제주도의 생활폐기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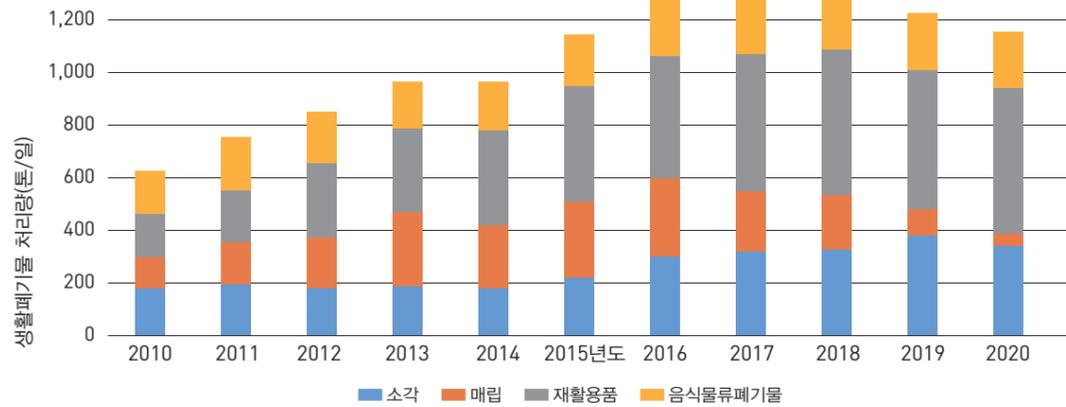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내부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2019년 이후 코로나 여파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감소 추세에 있었다가, 2021년 다시 관광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제주도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최종 처분되며, 재활용에는 용품 재활용과 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의 재활용되는 양은 2010년 기준 약 337.5톤/일에서 2020년 기준 781톤/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재활용률 또한 2010년 기준 52.8%에서 66.6%로 증가했다.

그림 3. 제주도 생활폐기물 처리방식별 처리량(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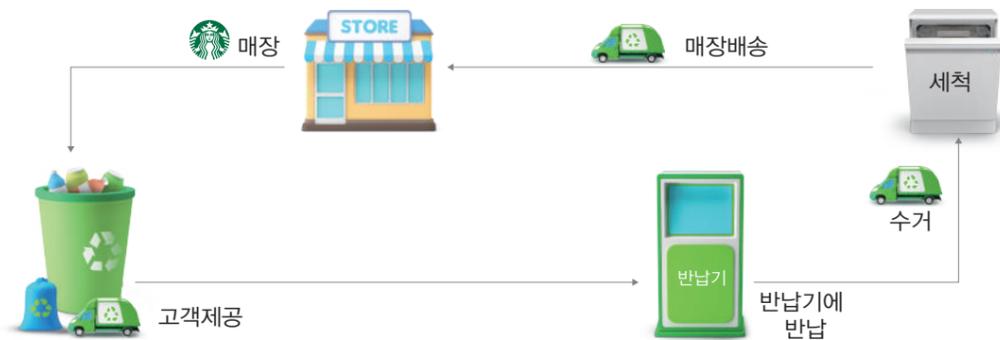
제주도 탈 플라스틱 및 저점 수거 정책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억제 프로그램

제주도는 대표적 관광지답게 관광객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가 타 지역보다 많다. 요즘 대세인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제주도는 커피전문점(스타벅스)과 협약을 체결하여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억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제주도내 스타벅스 매장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 스타벅스 전 매장(26개) 적용 시 연 168만개의 플라스틱컵이 대체 가능하며, 현재 스타벅스 이외 SKT 등 제주도내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그림 4. 제주도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억제 프로그램 개념



•1회용 Zero Waste Market 지정·운영

대형 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 규제를 시행함에도 매장 내에서 소포장 판매로 인한 플라스틱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포장재 없이 벌크제품 그대로 전시하고 무게 단위로 계산하여 다회용 용기에 담아가는 매장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범운영을 통해 참여 유통매장을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림 5. 제주도 장바구니 대어 및 친환경 포장재 사용 사례



초록마을, 목동점

올가홀푸드, 방이점

•공공기관 플라스틱 줄이기 의무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실천함으로써 '탈 플라스틱 제주' 실현을 선도하고 있다. 제주도청 및 소속 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도 교육청 및 소속 기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사(관광지 등 소관 시설 포함)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행사(축제)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컵, 병 입수, 풍선, 비닐우산(우의) 등의 구매·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재활용 도움센터 시설 개선 및 확충

농촌 마을의 생활폐기물은 수거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있다. 분리배출이 잘 안되고, 수거 차량을 운영하기도 어렵다. 마을 입구에 배출장소를 만들면 관리가 어렵고, 머지않아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다. 농촌 마을의 경관이 관광 상품이기도 한 제주도에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다.

클린하우스라는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이 있으나, 수거 단계에서 분리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없다. 이에 제주도는 일정 규모의 거점 유인(有人) 회수센터를 설치하여 농촌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돕고 있다.

재활용 도움센터는 마을 단위로 분리배출을 도와주는 시설이며, 자동 압축(착)기, 분리수거함, 분리수거 홍보 게시판 등이 설치돼 있다.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3~4명의 안내원이 상주 근무하면서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교육도 실시한다. 안내원이 상주하다 보니 거점수거 방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청결 문제, 혼합배출, 경관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각 가정의 문 앞에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 골목과 거리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그림 6. 제주도 재활용 도움센터 모습



대정읍 구억리 재활용도움센터 외부

대정읍 구억리 재활용도움센터 내부



맺음말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의 특성상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억제는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2030년 탈 플라스틱을 실현하기 위해 과감하게 일회용 컵 억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칫 제주도의 기간 산업인 관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경제성장보다 환경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환경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도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충북에 적용할 경우, 커피전문점과 소비자의 적응 기간을 거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 및 평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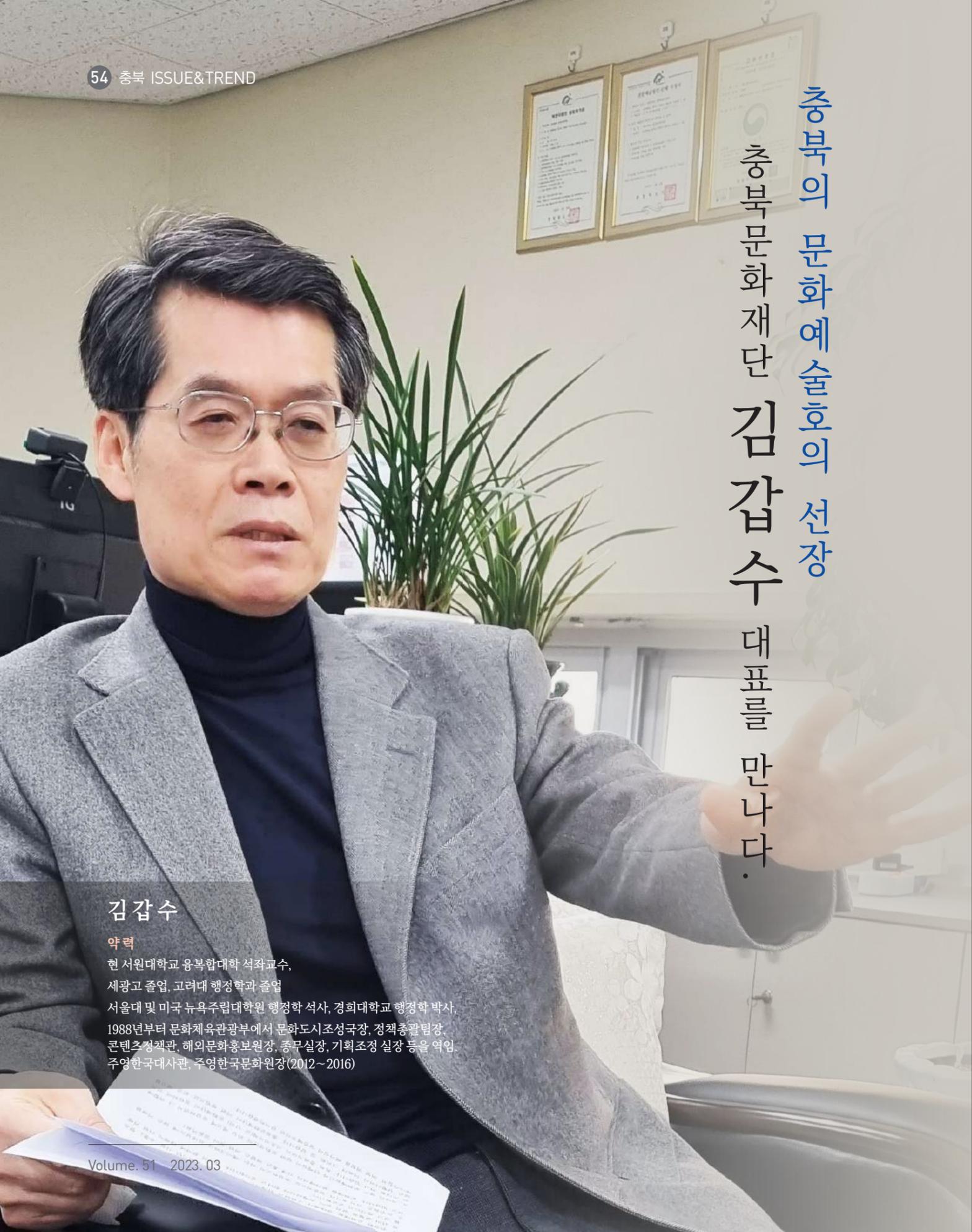
자원순환 정책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재활용 가능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분리배출과 수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는 마을마다 유인 또는 무인의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문전 배출이 아닌 거점 배출 및 수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단독주택과 농촌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다.

초기 적응의 시간과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고 주민과 관광객의 인식이 전환되고 나면 불편함과 거점수거함의 경관 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이다. 제주도의 유인 분리배출 체계가 운영과 관리 면에서 성과가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제주도는 유인의 재활용 도움센터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주민의 친환경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충북에도 농촌 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하여 점차 도심지역의 단독주택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참고문헌

- 강진영, 도시 3대 중점분야 개선방안 연구(폐기물), 제주연구원, 2017.
- 강진영·최홍진, 청정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추진방안, 제주연구원, 2021.
- 제주특별자치도(<https://www.jeju.go.kr/>)
- 제주시 재활용마당(<https://www.jejusi.go.kr/recycle/>)



충북의 문화예술호의 선장
충북문화재단 김갑수 대표를 만나다.

김갑수

약력

현 서원대학교 융복합대학 석좌교수,
세광고 졸업,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 및 미국 뉴욕주립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희대학교 행정학 박사.
198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조성국장, 정책총괄팀장,
콘텐츠정책관, 해외문화홍보원장, 중무실장, 기획조정 실장 등을 역임
주영한국대사관, 주영한국문화원장(2012~2016)

Interview

1. 대표이사님께서 청주 출신으로 문화행정 분야의 고위 관료로 재직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였고, 또 호평을 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삶을 잠깐 돌아보신다면요? 공직 중에서도 특히 문화행정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김갑수 대표 :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대 중반인 1988년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90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할 당시, 문화부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직에 입문한 이후 30여 년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만 근무하였습니다. 평생의 직장으로 문화부를 선택할 당시, 문화부는 정부 부처 중에서도 예산이나 조직 등 여러 측면에서 힘이 있는 부서, 흔히 말하는 인기 부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생활을 하던 30여 년 동안 문화는 국민 생활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고, 문화는 산업이 되어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또한 전 세계인이 열광적으로 즐기는 한류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문화부흥을 위해 프랑스를 모델로 출범한 문화부의 초대 장관으로 ‘시대의 지성’ 이어령 장관이 부임하면서 다른 분야보다도 30여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문화부의 수장으로 얼마전에 작고하신 이어령 장관은 문화정책의 기틀을 세운 한국의 앙드레 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행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충북문화재단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2. 문화 관련 일을 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보람 있는 일은?

김갑수 대표 : 문화부 근무기간 중 우선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그 첫째가 “도서관” 업무였습니다. 도서관은 당시 문교부, 지금의 교육부 업무로 공부방, 독서실 정도의 역할에 그쳤습니다. 문화부 사업으로 이관하여 지역문화활동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정립하고자 덴마크의 사례를 들어 ‘도서관 진흥법’을 제정하고, 도서관의 중심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을 문화부로 변경, 조직을 확대하고, 사서 관장 체제로 전환하여 전문가에 의한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30년 동안 문화부 내에서 다른 부서에 갈 때마다 매년 ‘목표설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어정책과장 시절에는 국어기본법 마련과 국어의 정보화계획을 위해 ‘말뭉치’를 구축한 것도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게임산업’을 문화산업으로 끌어들이는 사업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업무로 공중위생 차원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 컴퓨터가 대량으로 보급되는 과정에서 ‘게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달의 우수게임’ 선정과 함께 업체홍보 등을 통해 게임의 긍정적 기능을 보여준은 물론, 사행성·폭력성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한 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지금은 게임산업이 10조원대의 문화산업으로 e-스포츠의 중추국으로 문화콘텐츠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외에도 침체된 출판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웹툰시장을 확대하는 등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가는 우리 민족의 ‘문예 부흥 시기’에, 미력하나마 기여하였다는 점을 큰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이(interviewee) : 김 갑 수 대표
- 인터뷰어(interviewer) 및 정리 : 김미옥 연구위원, 임기현 연구위원, 김은형 지식정보팀장
- 일시 : 2023년 02월 23일, 10:00~12:00
- 장소 :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실 (향군로94번길 7(충북문화예술인회관))

3. 충북의 문화예술 정책을 이끌어가실 현장, 충북문화재단 대표 이사로 취임하신 지도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중앙에 계시다가 고향이자 지방, 충북의 문화예술을 직접 대면하시면서 느낀 감회가 남다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셨는지요?

김갑수 대표 :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고교 졸업 후 40여년 간 비록 몸은 떠나 있었으나, 한시도 잊을 수 없었던 저의 고향 충북에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제게는 큰 기쁨이자 또한 영광입니다.

고향에 돌아와보니, 중앙에서 활동한 문화행정가로서 지역의 문화활성화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특히 문화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도서관, 공연장, 미술관 등 핵심 문화시설을 단계별로 확충해야 합니다. 문화정책면에서도 문제점과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위주의 문화정책을 펴지 않았나 합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저소득층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으로 충북지역에도 1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현장과의 괴리로 7개 지역 군단위에는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자체가 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의 11%만 집행되고 있어 문화소비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은 수요의 뒷받침이 없이 지나치게 공공 부문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국민의 연간 미술전시회 관람횟수는 0.3회, 연극 0.1회, 서양음악 0.1회, 무용 0.01회 등 연간 1회에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수요 활성화 없이는 문화예술 생태계나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향유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의 반복적인 체험, 교육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기호와 취향이 형성되고 체화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외는 이를 문화자본이라고 개념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자본의 지역 적용성에 문제가 많아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를 더욱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다방면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4. 조금 짧은 기간입니다만, 그동안 파악하신 내용을 토대로 지역 문화예술계의 현안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나아가 우리 지역 문화예술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김갑수 대표 : 우선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공급중심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의 수용능력을 키울 수 있는 문화적 취향의 형성, 즉 문화자본의 축적으로 통하여 도민 여러분이 일생동안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의 연계사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청년들을 불러들이고 우리가 사는 공간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듭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113곳이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적인 도시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도농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를 위해 지역맞춤형 정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그 격차를 줄여보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문화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소통체계로 기능하고 있는 '충북문화예술포럼' 등의 운영상황을 파악, 각 예술의 장르별,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문화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한꺼번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순위를 두고 지역의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문화재단의 위상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5.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창작(예술인), 매개(기반 시설, 유통), 향유자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갑수 대표 : 문화재단은 지역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문화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앞장서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향유와 참여가 특정 계층에게만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는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문화의 주인공이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생활문화기반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창작-매개-향유 간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생태계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여건, 복지 실태 등을 점검하여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고 창작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예술가들이 창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이 예술가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예술가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도시, 풍부한 예술적 환경을 갖춘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술 창작과 향유를 연결하는 문화시설, 전문인력과 같은 매개 부문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충북은 부족한 문화시설에 대한 단계적 확충은 물론, 주민 생활권에 있는 폐교, 폐 산업시설, 행정청사 등 기존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작은 영화관, 도서관 등 생활문화 공간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활동할 지역문화 활동가, 로컬 크리에이터의 양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창작, 매개 부문의 활성화와 함께 매우 중요한 과제는 문화예술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정책은 수월성 위주로 지역정책은 보편성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술적 수월성과 보편성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현이지 않을까 합니다.



6. 도민들은 민선 8기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기대 혹은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화를 통한 르네상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갑수 대표 : 현재 문화재단에서는 10대 사업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조의 '청남대'를 핵심으로 기획하고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수와 산책로 조성을 통한 숲속 미술관 설치, 11개 시군의 명소화 전략, 필드 아트로 레이크파크 아트 비엔날레 개최, '예술의 강'에서의 상설 공연 등 “문화를 통한 르네상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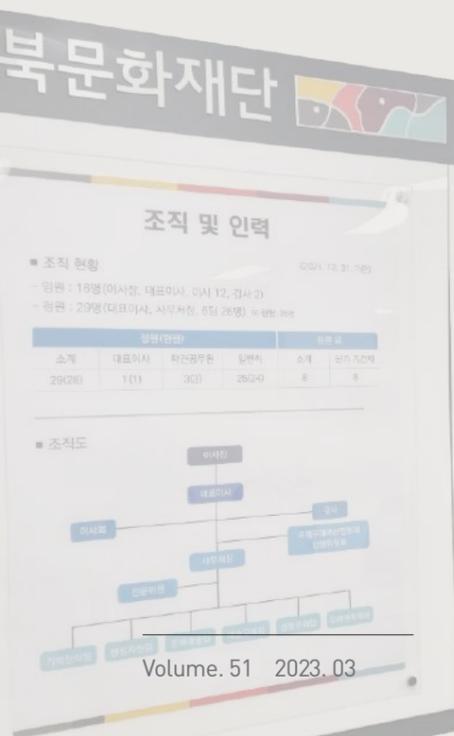
[예술의 강]은 '예술의 강은 문화의 바다로 흐른다.'는 컨셉으로 진행되는 공연으로 금년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주요 거점인 청남대 야외공연장, 농다리 미르숲 공연장, 충주호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뒤, 향후 산업단지, 주요 관광명소 등으로 확대해 관광과 예술이 결합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공연은 국악, 연극, 대중음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구도심, 버려진 시설들을 활용하여 예술인 창작촌, 창작 거리, 공방 등을 확대하고 문화예술과 관광과의 결합을 통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7.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이 광역 문화재단의 위상 제고에 공감하면서 그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지역의 기초지자체(군 단위)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이 어떤 방법으로 위상 제고를 해나가실지, 어떤 역할을 해가실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행정은 창조적입니다.”

김갑수 대표 : 문화기반은 열악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문화 예술 생태계 활성화와 문화기본권 보장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다는 것을 취임사에서도 천명하였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문화적 혜택이 뒷받침 되도록 '문화기본권'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북문화재단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영체계 개선 및 조직 정비를 추진하여 그간 문화재단이 단순한 보조금 집행 기관이 아니라, 도 행정기관 및 11개 시군에 대한 문화 정책 지원 및 컨설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정책 개발 및 연구 역량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재단이 향후 추진할 3대 역점방향으로 ▲충북도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창작-매개-향유의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문화적 도시환경 창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3대 역점 방향에 따라 이번에 발표하는 중점사업은 ① 서울 충북갤러리 운영 ② 충북메세나협회 설립 추진 ③ 충북 문화예술교육 허브 구축 ④ 예술의 강 [레이크파크 연계 공연] 운영 ⑤ 전통시장 문화 활성화 사업 ⑥ 도립 실험극단 운영 ⑦ 충북문화재단의 위상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예술인의 창작 안전망 구축·창작 지원 확대 △핵심 문화시설 확충·생활문화 공간 확대 △도민이 일생 동안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강화와 수요 기반 확충 △지역 문화활동가, 로컬 크리에이터 전문인력 양성 △청년들이 살고 싶은 곳을 만드는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구도심, 유휴시설들을 활용해 예술인 창작촌, 창작 거리, 공방 등 확대 △문화예술과 관광과의 결합을 통한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의 활성화 △지역 문화정책 개발과 연구 역량 강화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 충북도의 싱크탱크로서 저희 충북연구원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즉, 경제, 산업, 환경, 도시 공학, 교통, 복지, 문화·역사 분야 등의 박사급 연구진이 있고, 충북학연구소, 평생교육진흥원, 정책개발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의 특별조직이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과의 협력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양 기관의 교류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두 기관의 소통과 협력관계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계하여 충북연구원에 바라는 바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갑수 대표 : 충북문화재단에 연구 기능이 없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충북의 문화현상, 시설조사 등 기초자료 조사도 필요한 상황에서 충북연구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중앙과 서울에 집중된 문화정책을 지역화하고 맞춤형 정책으로 현장적용성 있게 변용하여 충북의 새로운 문화정책개발을 마련하는 데 있어 충북연구원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



자전거? 실내에서 타세요~

배 명 순 상생발전연구부 수석연구위원

봄에는 자전거지!

2022년의 혹독한 겨울을 밀어내고 기어이 봄은 왔다. 봄에는 추운 겨울을 이겨낸 싱그러운 생명들이 솟아나는 계절이다.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끝나는 소리이기도 하겠다. 또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들에게는 한 시즌을 시작하는 반가운 계절이기도 하다. 겨울을 제외한 3계절이 자전거 타기에 좋지만, 봄의 라이딩은 벚꽃, 봄 내음과 함께 할 수 있어 최고다.

미세 먼지, 그리고 비

자전거 라이딩의 최대 적은 날씨다. 겨울은 추위, 다른 계절은 미세 먼지와 비가 라이딩을 멈추게 한다. 미세 먼지가 자욱한 날에는 마스크를 써 보지만, 답답하기 그지없고 미세 먼지를 흠뻑 마신 것 같아 건강에도 해롭다. 그렇다고 마냥 날씨 탓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실내에서 타는 자전거

미세 먼지와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 자전거를 탄다. 비장한 각오로 구입했으나, 빨래 걸이로 사용되는 평범한 실내 자전거도 관찰지만 전문적인 자전거라면 더 좋겠다. 요즘은 각종 센서를 연결해서 컴퓨터 모니터나 TV의 화면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자전거 타기도 가능하다. 단순한 게임이나 재미 수준을 넘어서 체계적인 운동과 훈련이 가능하다. 세계의 모든 라이더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함께 자전거를 탈 수 있다. 그것도 실외에서 타던 내 자전거를 가지고 말이다. 심지어 유명한 선수와도 가상공간에서 어쩌다 조우할 수도 있다. 요즘은 공식적인 대회도 열린다.



4층의 자전거 훈련 장비 : 풍물러(좌)와 스마트 트레이너(우)



CRI 4층 체력단련실에서

우리 연구원 4층에는 체력단련실이 있고, 여기에는 일반 실내 자전거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운동과 훈련이 가능한 장비도 있다. 일반 실내 자전거는 3대가 있는데, 누구나 잘 아는 것이니 설명은 생략한다.

첫 번째 소개할 장비는 스마트 트레이너다.

실제 실외에서 타던 자전거를 트레이너에 부착하고,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무선으로 연결하면 준비가 끝난다. 스마트 트레이너 프로그램 중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즈위프트(ZWIFT)를 실행하여 로그인하면 실제 같은 라이딩을 시작할 수 있다. 때로는 실외에서의 실제 라이딩보다 더 힘들 때도 있다.

두 번째 소개할 장비는 풍물러다.

세 개의 원기둥 같은 드럼 위에 자전거를 그대로 올려놓고 달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자전거 바퀴와 닿아있는 드럼이 돌아가면서 제자리에서 자전거를 타게 된다. 처음 타기가 어렵고, 다소 지루한 느낌이 있으나 자전거 위에서의 균형감각을 익히는데 최고의 훈련 장비다. 자전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동차가 다니는 공도를 다니게 되는데, 이때 안정적이고 똑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균형감각은 필수적이다. 뒤에서 차가 와도 불안하지 않고, 차선 바깥쪽에 붙어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법적으로 마지막 차선의 1/3은 자전거에 허락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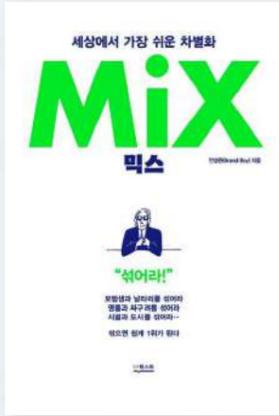
우와!!!

지난달 연구원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몇 분이 자전거 교실에 참여했다. 풍물러는 많은 시간 훈련이 필요해서 경험하지 못했고, 스마트 트레이너의 뜨거운(?) 맛을 봤다. 5분도 안 되는 훈련으로 지쳐 떨어져 나갔다. 허벅지가 터질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운동이 제대로 된다는 증거다. 실제 자전거를 가상의 인터넷 공간과 연결해서 라이딩을 즐기는 매력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

자전거 라이딩에 관심이 있거나 스마트 트레이너를 경험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라. 우와!!! 비명이 절로 나오는 뜨겁고 짜릿한 세계를 맛보게 될 것이다.



김은형 기획경영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차별화

MIX=믹스

안성은(Brand Boy) 지음

유독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다.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내적인 소용돌이!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일지도 모르는... 2023년이 시작된 지도 한참인 지금에서도 못한 다사다난했던 2022년 Look Back이 필요한 시점....

그리고 지난해 연말부터 쉽없이 달리다가 과열된 브레이크를 다잡기 위해 차가운 '冊속'으로 도피를 하였다.

그런면에서 '賜暇讀書'는 연구기관에 최적화된 복지시스템이다.

글쓴이 Brand Boy '안 성 은'

'팔리는 브랜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하는 유튜브.

광고회사 TBWA KOREA, 이노션 월두와이드의 기획자를 거쳐 토스의 브랜드 마케터로 국내 정상급 회사에서 일했다.

2019년 '드디어 팔리기 시작했다'를 출간한 그는 브랜드에 미친 남자다.

그의 두 번째 책인 MIX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1. 책속으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차별화???"

'퍼스널 브랜딩'을 오래전부터 꿈꾸었던 나에게는 이상적인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많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섞어라!" 모범생과 날라리를, 명품과 싸구려를, 시골과 도시를...

섞으면 쉽게 1위가 된다.

지식의 융합 '통섭(統攝)'과는 또 다른.... 융합과 그 안에 담긴 본질은 무엇일까?

이 책을 집어든 이유이기도 하다.

책을 펼치면 늘상 하는 습관으로 책표지에 소개되는 내용과 목차를 우선 살펴 보게 된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각 파트마다 소개되는 브랜드 이야기에는 때론 익숙하고, 때론 낯선 브랜드의 참신함이 담겨 있다.

'섞으면 물건이 팔린다'

브랜드에는 그 마다의 스토리가 있다. 여기서 만나게 브랜드 안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브랜드와 빵집의 이야기도 있고, 흔히 접하는 브랜드들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읽는 동안 해당 부분의 믹스 기법들에 대해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애플의 광고 전략, 짝퉁같은 진품명품의 상품화 이야기, 드라이브 스루의 시작, B급 스타는 클래식 수트를 입는다는 "사이"의 전략, 패션모델은 사람이라는 공식을 깬 세계에서 가장 옷 잘 입는 강아지 이야기, 편의점 컨셉으로 만든 옷 가게,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사과 '애플' 그들의 차별화된 전략과 실용적인 커뮤니케이션...그중에서도 아직까지도 나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잡지 몰락의 시대에 잡지와 책을 믹스하여 성공한 잡지 "모노클"이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도한 차별화의 결과물이었다.

그 안에는 모두 '인간'이 담겨 있었다.

& 미국에서 '편의점의 미래'로 불리는 "폭스트롯"은 지역특산물을 만나는 편의점으로 충북의 6차산업이나, 지역브랜드의 가치 창출에 인사이트를 주는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에다 충분하다고 본다.

'섞으면 사람이 팔린다'

브랜드와 사람의 이야기!! 알만한 기업 CEO의 생활은 파격적이다. 치어리더 CEO들의 이야기,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 애플 아이패드 광고에서 스파이로 열연한 팀쿡은 물론 은행업계도 상당히 보수적인 골드만삭스의 CEO로 빌보드 차트에 오른 데이비드 솔로몬은 남성중심의 조직문화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다. 라팔라 춤을 추는 오바마 대통령, 이는 날라리와 모범생을 섞은 사례이다. 국내 연예인인 이시영은 배우이며, 대한민국 국가대표 권투선수로 선발되기도 하였다. 부캐로 성공한 연예인이기도 하다.

'딤후와 방송국을 섞어라' 와 '세일즈맨과 디자이너를 섞어라' 내용은 앞으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도 넉스시 해답을 던져주고 있었다.

"I AM MEDIA"는 시대정신이다.

이번 장에서 얻은, 나를 향한 문장이다.

&

예술작품도 표절이다? 표절의 제왕 피카소, 영화의 거장 쿠엔틴 타란티노, 경영하는 디자이너 배달의 민족 김봉진 의장 고객의 마음에 파고 들려면...축적의 시간이 우선 필요하다.

'섞으면 모든 것이 팔린다'

팔리는 브랜드!!! 한동안은 "국뽕"에 심취한 적도 있었다. BTS, 오징어 게임도 있지만...한국관광공사의 홍보영상으로 국악을 섞은 얼터너티브 팝 밴드 이달치의 흥겨운 조신 힙합 영상이 단초가 되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본질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례이다. 책 끝 무렵에서는 '도시와 시골' 주제의 브랜드 이야기로, 귀에 들려오는 피아니

스트 '유키 구라모토'의 이야기가 들어있어 잠깐 책을 내려놓고 들뜬에서, 새벽녘 길 한복판에서 연주한 그 시각적 감동을 되새기느라 한동안 머릿속으로 영상을 돌이켜보고 있었다.

2. 책을 덮으며

나의 300개의 낱말 카드를 만들어보자

소프트뱅크 그룹(창업자) 손정의는 '섞기'의 천재였다고 한다.

돈이 없던 젊은 시절의 그는 300개의 낱말카드를 준비하고 날마다 3개를 무작위로 뽑아 섞는 방법으로 1년 만에 250개의 사업 아이디어를 뽑아냈다고 한다.

나도 300개의 낱말을 만들어 보자!!!

옵니버스식 독서록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와 차별화 전략을 있다보니, 옵니버스식 독서록 작성이 되고 말았다. 그 안에 관통하는 화두는 "모방과 창조" 그리고.....

브랜드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3. 독서공간의 확장

지난해 첫 사가독서 휴가지로, 휴가의 목적과 계절이 잘 묻어나 있는 공간 "후마니타스"로의 두 번째 여행을 포기하고 인근의 도서관 공간 탐방 겸 "금천도서관"으로 둘째 아이와 목적지를 정했다. 공간 일부에 '국립세종도서관' 일부 컨셉이 들어가 있어 내심 반가웠다. 음악감상 공간에 자리를 잡고 반쯤 읽어 내려갔던 책을 펼쳤다.

*** "사가독서(賜暇讀書)"**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문운(文運)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사가독서(賜暇讀書)" 제도가 있었다.

우리 연구원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가독서' 제도를 도입하여 2022년 7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연구원은 임직원들의 자율적 학습을 통해 자기계발의 시간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임직원들의 심신을 회복하는 휴식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교육훈련시간도 확대하며 독려하는 취지로 시작하였다.

CRI 아카이브

Series 05

“충북 Issue&Trend”는 그간 축적된 연구성과물을 공유하고 그 성과를 회고하는 아카이브 시리즈를 제47호부터 수록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록 내용과 함께 그 성과와 의미를 담고자 합니다.



충북경제연구 = 忠北經濟研究 (創刊號)

발행일 : 1990년 12월

발행처 : (財團法人) 忠北經濟研究所

인쇄 : 뒷목출판사

면수 : 89면

"알찬 연구활동의 의지표현"을 담은 충북경제연구소의 학술지 창간호를 펴내다.

1990년 12월에 「忠北經濟研究」(創刊號)가 발간되었다. 지자체 최초 출연연구기관으로 1990년 5월 출범한 충북경제연구소의 성격을 보여주는 학술지로 1991년까지는 연 1회간으로 출간하였다.

이후 1995년에 들어와 충북경제연구소가 충북개발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연구영역 확대와 더불어 제호를 「충북개발연구」로 변경, 제17권 제2호까지 전국적인 학술지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2007년에 들어와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 제고와 등재지를 목표로 「地域政策研究」로 제호를 2차 변경, 2022년 12월 현재 제33권 제3호까지 발행하였다.

본 학술지는 지역과 관련한 경제, 행정, 도시 및 지역계획, 환경, 관광, 문화, 사회복지분야 등의 이론과 실증적 연구를 담고 있으며, 2018년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20년 11월 2일 한국연구재단 '2020년도 학술지 평가 최종 결과', “등재학술지” 승격에 당당히 포함되어 지역 연구 학술지로서의 역사와 역량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충북연구원 개원 30주년을 맞은 2020년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됨으로써 그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지역학 연구에 대한 기여로 충북연구원의 위상을 드높였음은 물론, 전국적인 학술지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발간 주기는 등재지 선정 이후 매년 3회(5월, 8월, 12월)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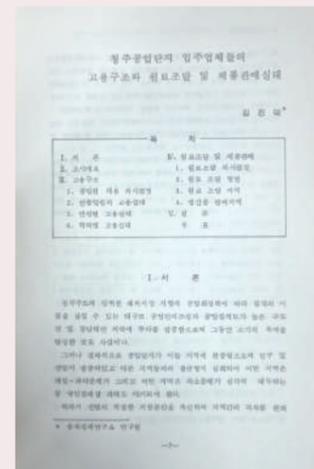
忠北經濟研究

"창간호 발간사 중에서"

충북경제연구소는 지역개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각종 지역정책을 개발하고 견실한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지역경제의 정확한 자료를 정비하고 지역발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앙정부시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민의 복지향상과 자원의 적정배분을 달성하는 것이 충북경제연구소의 책무일 것이다. (중략)

이번에 펴내는 “충북경제연구”는 충북경제연구소의 연구지 창간호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 이론적 면에서 또 실증분석 면에서 더욱 충실하고 알찬 연구활동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所長 洪舜基



창간호 수록된 논문은...

총 4편으로 국문 3편, 영문 1편이 수록되었다.

- 청주공업단지 입주업체들의 고용구조와 원료조달 및 제품판매 실태 / 김진덕
- 賃金勞動者層의 成長 및 内部構造에 관한 一研究 : 雇傭構造 變化趨勢에 대한 考察을 中心으로 / 鄭然政
- Managerial Incentives and Risky Project Selection / Wook-Hyon Jo
- 忠北地域統計整備方案研究 / 盧根鎬

30년이 훌쩍 넘긴 자료를 대할 때는 매년 조심스럽다. 책표지에서 묻어나오는 시간의 무게감과 함께 그 당시 책 뒷면에 부착된 '충북경제자료안내실' 송귀빈 선임 사서의 필체가 담긴 창구기호 카드 기록물을 통해 도서관 운영의 한 단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 : 지식정보팀장 김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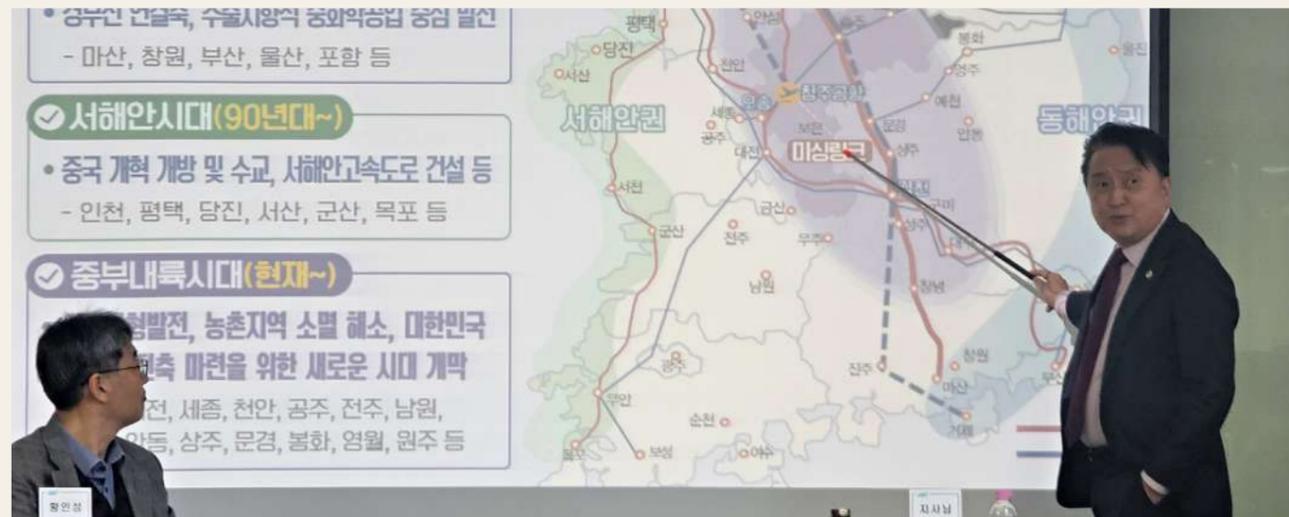
충북연구원, 「2023년 상반기 워크숍」 개최

김영환 충북도지사 도정 현안 이슈 특강

3월 2일~3일, 청남대 및 충주호 일원 등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현안 거점을 방문하여 현장감 넘치는 2023년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미래사회 이해를 위한 전문가 특강과 함께 충북도정의 주요 현안 이슈를 주제로 한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의 특강이 있었다. 2일, 청남대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특강에서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신기술 전망과 혁신 정책 대응 방안”에서 AI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술변화에 따른 트렌드 예측과 함께 그 미래기술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 “산업정책의 부활과 임무중심 혁신정책의 귀환”에서는 산업구조의 대전환기 글로벌 환경변화와 성장한계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신성장의 원천과 혁신모델의 필요성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며 산업정책의 부활과 국가의 역할 변화를 강조하였다. 이어 김영환 충북도 지사는 충북이 이룩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연구원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김 지사는 “충북이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는 강점을 살려야 함은 물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 자산에 대한 소프트파워를 폭넓은 연구와 함께 선제적으로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후 이틀간에 걸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현안 거점인 청남대 및 호암지 생태공원, 충주호 종댕이길을 둘러보고, 정용일 연구위원과 성보현 연구위원의 민선8기 도정현안에 대한 주제발표 후 연구원 현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2023년 기본연구과제 착수연구심의회 추진

2023년 기본연구과제 착수연구심의회를 2.27.(월)~3.10.(금) 기간 동안 연구부서별로 진행하였다.

기본연구과제는 지역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로 착수연구심의회에서 연구의 필요성, 연구방법의 적정성, 연구의 논리성과 독창성, 선행 연구 검토계획의 적합성 등을 심의하였다.

“충북 스마트교통 추진전략” 세미나 개최

충북은 도내 혁신거점인 혁신도시와 오송·오창 신도시의 의료, 교통, 생활서비스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교통분야에서는 신교통수단 도입, 생활형 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원은 1월 6일 “충북 스마트교통 추진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 후지쯔(Fujitsu, Japan) 김재열 박사는 “일본의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을 주제로 발제

하였으며, 이어 홍성호 박사도 “충북 스마트시티 구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주제발제에 따른 토론에는 오상진 박사의 사회로 충남연구원 김원철 박사, 대전세종연구원 안용준 박사, 본원 정용일 박사가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로 일본의 사례를 감안한 충북의 스마트교통 추진전략 수립에 검토할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충청권 지자체 연구기관이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교통정책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CRI NOW

Vol. 51

2023년 제1, 2차 인문학 아카데미 개최

‘생활 속 인문 정신문화 확산 및 소양 함양’을 위해 인문학과 연계된 다양한 학문을 폭넓은 해석과 지혜로 서로 공유·소통하고자 개최하고 있는 인문학 아카데미를 2023년에는 충청북도 충북 오픈아카데미 장터(장돌뱅이 배움터) 명사 초청 특강과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2월 6일 인문학 특강에는 강형기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명예

교수를 초청, “이제는 예술경영이다”란 주제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강연을 개최하였으며, 2월 28일에는 신철호 OGG대표이사의 “하늘에서 내려다 본 충북도, 혁신 플랫폼과 네트워크 이펙트의 시작”이란 주제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강연을 개최하였다.



[북부분원]

북부분원 -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상반기 업무간담회

북부분원(분원장 최용환)은 2023년 사업계획 내 네트워크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월 10일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2층 세미나실에서 상반기 업무간담회를 개최, 2023년도 북부분원 및 북부출장소 업무 공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남부분원]

충북연구원 남부분원 신규사업 컨설팅

남부분원(분원장 변혜선)은 사업계획서의 계획·작성·보완 단계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남부 3군의 공모사업 선정에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충북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남부 3군-분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공모델을 발굴하고자 2월 28일 충북연구원 4층 세미나실에서 옥천군 농촌협약 사업 공모 지원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충북학연구소]

충북학연구소, 2022년 충북학연구 성과물 발간 및 배포

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소장 임기현)에서는 2022년 ‘충북학연구’의 성과물을 발간 및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배포하는 성과물은 「충북학」 제24집, 충북학자료총서 17 「주해 삼죽사류」, 충북학자료총서 18 「1928년 발간 충북의 문화와 사람」, 충북학자료총서 19 「동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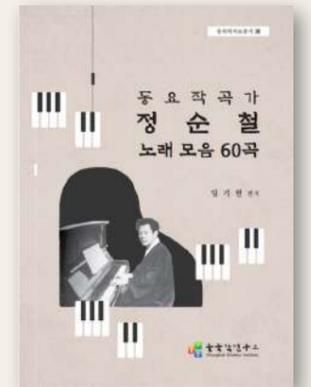
작곡가 정순철 노래 모음 60곡」, 충북, 충북인 이야기 2 「우린 통일대두 갈 고향이 얹어유」, 충북 문화상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으로 「보은의 동제」, 충북의 미래기획 사업으로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 조사연구」 연구보고서 등을 지난해 말부터 발간하여 현재 배포 중이다.



「충북학」 제24집



「주해 삼죽사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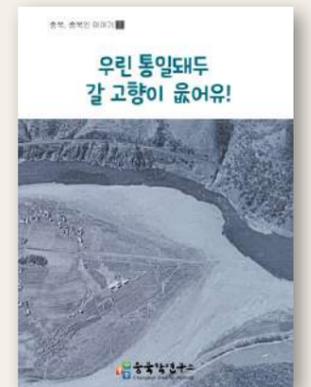
「동요작곡가 정순철 노래 모음 60곡」



「1928년 발간 충북의 문화와 사람」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 예술교육 실태 조사연구」



충북, 충북인 이야기 2 「우린 통일대두 갈 고향이 얹어유」

[충북정책개발센터] 『충북정책지도』 발간

충북정책개발센터는 2022년부터 과학적 증거 기반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로 『충북정책지도 Series』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네 번째 시리즈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충북정책지도-충북의 소멸위험지역 현황분석”을 발간. 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하여 충북의 지역별 소멸위험지수 변화 추이와 추계, 시·군·읍·면·동, 집계구 단위별 소멸위험지역의 공간적 분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인구의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 등 요인에 따른 인구증감 유형과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섯 번째 시리즈로는 충북도내 시·군별 토지이용규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규제지역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충북정책지도-충북의 토지이용규제 중첩분석”을 발간. 이번 발간물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14개의 토지이용규제의 현황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지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도내 지역의 총 규제지역 면적과 중첩지역 면적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실제 충북도의 토지이용규제 중복 현황을 시각화하였다.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2023년 1차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 사전설명회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센터장 함창모)에서는 충청북도에서 의뢰한 '2023년 제1차 충청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1.11~13일 3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사전 설명회에서는 충청북도와 각 시·군 30개 사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심사에 상정되는 사업의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23년 충청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교육 수요조사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단장 최은희)은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교육훈련 관리 및 시행 역할에 따라 제공기관 대상으로 현장의 교육 욕구를 파악하고 제공기관의 내실 있는 사업운영과 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여 2023년도 교육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2023. 1. 19.(목)~ 1. 30.(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2023년 제1차 충북안전정책세미나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센터장 배민기)는 지역의 재난안전 이슈에 대한 담론의 장 마련 및 인식 확산을 위해 안전정책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1월 31일 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원인미상의 화재 또한 증가하여 국내외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안전에 대한 충북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충북도시재생지원센터]

2023년 제1회 충청북도 도시재생정책 세미나

충북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채성주)는 2월 24일, '충청북도 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혁신 모델'을 주제로 2023년 제1회 충청북도 도시재생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황희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도시재생, 새로운 시선' 과 혁신지구 담당자의 '도시재생정책 동향과 혁신지구 사업추진 방향', 실무추진자의 '혁신지구 실행방안 : 구미시 사례'에 대한 주제를 발제하였다. 이어 이경기 수석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하여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이영은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김선덕 충북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충청북도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 혁신 방안'에 대하여 열린 토론이 진행되었다.





지역정책연구 원고 모집

- 투고대상** 관련 전문가
- 분 량**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 (A4 15~20매 이내)
- 논문내용** 지역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으로 분야 제한 없음
- 작성방법** 충북연구원 홈페이지(www.cri.re.kr)내
작성요령 참조하시고,
지난 논문은 E-book 형태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마 감 일** 수시 접수
- 문 의** 충북연구원 학술지담당
tel. 043-220-1133 fax. 043-220-1119
e-mail. yhchoi@cri.re.kr

‘지역정책연구’는 충북연구원 설립 초창기 “忠北經濟研究”로 창간, 1995년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충북개발연구”로 제호를 변경, 이후 연구영역 확대를 위해 2007년 “地域政策研究”로 제호를 다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결실로 2018년 10월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개원 30주년을 맞은 2020년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최종 선정되어 연간 3회 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ssue & Trend

- 발행일** 2023년 03월
- 등록번호** ISSN:2093-5684
- 발행인** 황인성
- 발행처** 충북연구원
- 편집위원** 정용일(위원장), 김미옥(간사), 조진희, 이소영, 임기현
- 총괄간사** 김은형
- 주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 홈페이지** www.cri.re.kr
- 전 화** 043) 220-1107, 1108
- 팩 스** 043) 220-1199
- 제 작** (주)신그라픽스 043) 268-1241

본지에 글이나 사진을 충북연구원의 허락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간행물의 내용은 전적으로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충북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